

나
눔
으
로
시
작
하
는
한
해

1st International Giving Culture Symposium



Giving Korea 2001

나
눔
으
로
이
어
지
는
한
해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 2000년 서베이조사 결과분석

황창순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머리말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charitable giving)와 자원봉사(volunteering)에 대한 인식, 태도, 그리고 행동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그 동안 몇몇 기관이나 학자들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보고되었으나(강철희 1998; 김준기 2000; 정무성 2000)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의 결과는 제대로 보고된 것이 거의 없었다. 2000년 여름 아름다운재단이 미국의 지역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을 모델로 출범한 이후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아 지속적인 연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전국적인 서베이 조사(2000 National Survey on Giving and Volunteering in Korea)」를 실시하게 되었다.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서베이 조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축적되어 왔다(Independent Sector 1999; Giving USA 1999;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in Britain 1994; Statistics Canada 1999; APPC 2000).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Johns Hopkins University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Research Project Research Guidance Manual 1997)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연구과제의 하나는 비영리조직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민간자원, 즉 자선적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신뢰할 만한 양적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조사 연구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동시대 한국 성인들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였고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배경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기부와 자원봉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비영리조직, 즉 소규모의 자원적 결사체나 우리가 흔히 NGO라 부르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공익적인 사회복지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민간자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사실 한 사회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패턴은 각 사회에 존재하는 비영리조직의 특징과 기능, 그리고 다른 영역과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

기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기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자선적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은 많은 종류의 공익적 단체의 존재양식과 운영, 그리고 바람직한 역할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발전을 위한 활기 있는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2.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 선진 외국의 현황

이 장에서는 한국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의 한 과정으로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의 기부지수 조사 체계를 검토한다. 외국 선행연구의 검토는 우리나라에서 서베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질문 문항과 표본의 선정, 그리고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사도구의 개발 및 조사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베이 조사의 문제점과 제한점에 대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선진 외국의 여러 나라 가운데 자선적 기부가 가장 활발하고 기부의 규모도 가장 큰 미국과 자선적 기부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의 하나인 영국을 대표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아서 선진 외국의 자선적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의 방법과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

(1) 미국의 기부와 자원봉사조사

미국의 경우 자선적 기부금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기부에 관한 통계는 AAFRC(American Association of Fund Raising Counsel)에서 발행하는 Giving USA 자료이다. 기부와 자선에 관한 두 번째 통계적 자료는 미국의 Urban Institute에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와 자선 연구센터(the Center on Nonprofits and Philanthropy, CNP)의 하나의 부속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국립 자선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NCCS)에서 발간하는 자료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두가지 통계자료 이외에도 자선적 기부금이나 민간자원의 흐름에 대한 다양한 파악체계가 상호간에 체크할 수 있는 방식(cross-checking system)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자선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에도 자선적 기부금을 간단하면서도 단순하게 파악하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통계와 보고서를 정교하게 분석해서 자선적 기부금의 실태를 추정할 뿐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자나 기부금을 받는 기관은 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른 민간 연구기관으로의 보고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자선적 기부금의 원천은 개인, 유증(bequest), 기업재단을 제외한 재단, 그리고 기업의 직접기부와 기업재단을 통한 기부가 있다. 이들이 기부한 자원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s)의 개인에 의한 세금보고(tax return) 체계와 비영리조직이 미국의 국세청에 보고하는 재무관련자료의 원천인 The Form 990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자선적 기부금을 기부했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얼마의 기부금을 기부했는지를 국세청의 보고체계를 통해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민간복지조직이나 비영리조직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국세청에 기부금 수령자의 보고의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세금공제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질이 높고 신뢰성 있는 보고체계(quality reporting)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고자, 회계사, 감독자, 그리고 일반대중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선적 기부금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면적이다. 우선 자선적 기부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는 민간기부금을 조사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AAFRC trust for Philanthropy의 Giving USA가 가장 대표적인 자선적 기부금의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기부금에 대한 또 다른 신뢰할 만한 자료는 독립섹터(Independent Sector)의 서베이 조사의 결과에서 나온다. 특히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조사는 이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Independent Sector의 전국가구대상 조사(national household survey)가 가장 신뢰성이 있는 자료원이고 국세청의 세금환급(tax return) 자료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부금의 총량을 파악하는 경우 전문가의 지식으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 Giving USA자료: 가장 대표적인 Giving USA 자료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국자선적인 기부금의 총액을 추정(estimate)한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추정치와는 다를 것이 분명하지만 많은 경우 그 차이는 기부금의 범위나 분류체계와 같은 합의되지 않은 용어나 주요개념 정의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우선 국세청에 보고된 자료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부금을 추정하는 원천이 된다. 미국의 Giving USA 자료는 기부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분석모델(regression model)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추정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세금환급 자료가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추정치가 된다. 1987년 이후에는 항목별로 자신의 세금을 공제받는(itemized deduction) 세금공제 자료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개인기부금의 원천이 된다. 이 기간 사이에 비항목별 공제

(nonitemized deduction) 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즉 항목별로 공제를 받지 않는 세금공제자의 기부금은 미국의 Independent Sector의 “미국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한다. 이 모든 자료는 보스턴 대학의 사회복지연구소(Institute of Social Welfare)에 의해 분석되고 이 분석된 자료는 일반 사회조사(GSS, General Social Survey)와 소비자재정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에서 수집된 자료와 비교된다. 조사시점 때문에 추정에 필요한 기부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예측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방법론적으로 Giving USA를 발표하는 AAFRC가 인간의 자선적 기부금을 조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가지인데 자선조직에 대한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의 방법이 그 첫째요 미리 선정된 panel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패널조사가 두 번째이다. 무작위 표집조사는 비영리조직의 재정보고서인 Form990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했으며 25,000\$ 이상의 예산을 가진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조사는 미국의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에 의해 자료가 기록되고 있으며 주요 7개 자선 영역별로 표본이 구성되는데 그 표본이 추출되는 7가지의 대표적인 비영리 영역은 다음과 같다.

- (a) 예술, 문화, 인문학; (b) 교육; (c) 환경과 동물보호;
- (d) 보건 및 건강; (e) 인적서비스(사회복지);
- (f) 국제문제; (g) 공익/사회적 이익

한편 기부조사에서 사용하는 무작위 표집의 경우는 소규모 조직의 응답률이 낮은 문제점과 무작위 표집의 응답률이 25%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패널표본은 27%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 Independent Sector의 기부조사: 이 단체는 1980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며 Washington D.C.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조직은 미국의 재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비영리조직을 함께 묶는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단체를 위한 전문포럼이며 그 자체가 일종의 비영리조직이다. 이 단체의 연구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The Independent Sector Giving and Volunteering National Survey”가 1988년 이래 2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1998년의 미국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실태를 분석한 1999년판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이자 이 단체의 통권 6번째의 보고서이다. Giving USA 자료가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고 또 패널조사와 다른 통계조사를 검토해서 종합적인 미국의 민간자원의 동원을 추정하는 데 반해

Independent Sector의 서베이 조사는 미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의 실태를 파악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1999년판 서베이의 특징은 미국의 갤럽조사연구소에서 18세 이상 2,55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내에서의 대면 면접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자선과 기부,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2) 영국의 기부와 자원봉사 조사

영국에서 자선적 기부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은 1985년이다. 처음 4년 동안의 서베이는 ‘가정의 자선적 기부금조사’(Charity Household Survey)로 불려졌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개인기부조사(Individual Giving Survey)로 불리었다. 영국에서 기부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다. 기부조사를 하나의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매년 기부추이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제공해서, 해마다 기부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자선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CAF(Charities Aids Foundation)에서 주관하는 이 기부조사는 기부와 자원봉사를 동시에 조사하며, 기부나 자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조사한다는 것에 특이함이 있다.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부지수조사는 몇몇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다. 1993년 까지는 면접 설문조사를 제작하는 작업은 CAF의 조사통계국(Research and Statistics Unit), Manchester 대학의 the Center for Applied Social Research, 그리고 전문적인 사회조사기관인 Public Attitude Survey Ltd.가 공동으로 맡았다. 면접조사는 전문적 사회조사기관에 의해 12개월 동안 면접을 진행했으며, 영국의 성인인구를 대표하는 1,00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1994년 10월 이래로 영국의 개인 기부조사는 NCVO(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매달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다가 1999년 이래로 3개월에 한번씩 실시하고있다.

모든 면접은 면접자가 직접 피면접자의 가구를 방문해서 수행하는 대면면접을 사용했으며 조사기관에서 자료의 입력과 컴퓨터 자료파일을 준비하였다. 표본은 나이집단(4), 직업집단(4), 성별(2), 그리고 11개의 표준화된 지리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할당 표본(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표준으로 하고 해마다 몇 가지 새로운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면접을 담당하는 조사기관은 면접의 표준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절차를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10%의 표본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개인적으로 다시 면접하거나 전화로 확

인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반응지를 보냄으로서 체크를 하였다. 재조사는 대상자가 분명한가,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가, 특히 면접자격에 관한 문제를 체크하였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면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몇몇 기관에서 함께 실시하던 서베이 조사를 CAF와 NCVO(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 CAF에서 발표한 영국의 개인 기부금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1996과 1997년 사이, 그리고 1997년과 1998년 사이의 두 시기 동안에 자선기관에 대한 가구별 기부의 비율은 약 30%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 준다. 한편 좀더 길게 보아서 1974년 이래 20년 동안 가구당 자선에 대한 기부의 비율은 서서히 쇠퇴하였다. 1997-1998년 사이의 가구당 평균 기부금의 액수는 한주에 약 40파운드로서 그 이전의 해와 비교해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는 민간의 자선적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제도의 개정이나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일반 대중의 자선적 기부금에 대한 행동과 태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CAF 2000 자료; Jas 2000).

영국 정부는 이러한 자선적 기부금의 하락추세를 인식하여 세금제도를 통하여 자선적 기부의 문화를 자극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민간복지단체나 비영리조직의 경우는 개인의 자선적 기부금이 주요 재정적인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가 건전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새로운 기부의 시대(a new age of giving)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제도의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제도개혁이 지향하는 바는 기부자나 기부금을 수령하는 자선단체 모두에게 “현대적이고, 유연하며, 단순한” 세금제도에 있다. 특히 영국의 재무성은 현재의 세금 유인제도에 추가적으로 “세금에 효과적인 기부(tax-effective giving)”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CAF, IR(the inland Revenue, 국세청), 그리고 자원조직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가 이러한 법 개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연합 연구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결국 영국에서 기부금을 파악하는 체계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국세청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책임있는 민간기관에서 개인별로 기부금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미국의 경우는 시종일관 가구당 기부금 조사(household giving survey)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에 반해 영국의 경우 기부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가구당 기부금 조사를 실시했지만 몇 년이 지난 이후에는 개인

별 기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조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기부조사 방법과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기부조사 설계에서나 그리고 질문 양식에서 가장 진일보한 조사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의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실시한 가장 최근의 기부조사 설문지를 검토했으며,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를 대상으로 APPC(아시아태평양공익재단협의회)가 실시한 기부조사 설문지, 그리고 존스홉킨스대학의 세계적인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사용한 기부와 자원봉사조사에 관한 연구방법론을 검토해서 본 연구의 조사설계에 응용하였다. 이 연구가 검토한 선행조사는 다음과 같다.

- 미국의 Giving USA
- 미국의 Independent Sector의 National Household Survey
- 영국의 기부조사(Individual Giving Survey)
- 캐나다 연방정부의 통계청이 실시한 기부조사
-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를 대상으로 APPC가 사용한 기부조사설문지
- Johns Hopkins University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Research Project에서
전세계 40여개국을 대상으로 사용한 기부조사방법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에서 1999년에 사용한 기부조사 설문지
- 국내의 기존 조사연구(김준기 2000, 정무성 2000)에서 사용한 방법

(3)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서베이의 주요 쟁점

이러한 여러 나라의 기부지수조사와 한국의 기존 기부조사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개인대상 조사인가와 가구대상 조사인가?
- 순수 종교적인 목적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와 다른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기부와 자원봉사를 함께 조사할 것인가, 따로 조사할 것인가의 문제
- 표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자료수집의 구체적인 방법

3. 조사의 방법

(1) 조사의 방법과 목적

국내외 기부조사에 대한 문헌연구와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선행연구 및 조사도구

검토를 토대로 2000년 9월 1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질문지가 완성되었고 2001년 1월초 한국 갤럽에서 가구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0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서베이의 주요 조사문항

구 분	문 항
I. 개인의 자선/기부	- 2000년 자선/기부 여부 - 자선/기부한 곳 - 자선/기부 금액 - 자선/기부 방법 - 자선/기부 정기성 여부 - 자선/기부처 접촉 경로 - 자선/기부처 선택 이유 - 자선/기부가 많았던 달, 그 이유 - '99년 대비 자선/기부 금액 변화
II. 가족의 자선/기부	- 자선/기부한 곳 - 자선/기부 금액 - 자선/기부 방법 - 자선/기부 정기성 여부
III. 자선/기부 동기	- 자선/기부 이유 - 자선/기부 결정시 고려사항 - 자선/기부금 수혜 희망 분야 - 자선/기부하지 않는 이유 - 앞으로의 자선/기부 의향
IV. 자원봉사활동	- 2000년 자원봉사활동 여부 - 자원봉사한 곳 - 자원봉사 시간 - 자원봉사 정기성 여부 - 자원봉사처 선택 이유
V. 자원봉사활동 동기	- 자원봉사활동 이유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경험 - 자원봉사하지 않는 이유 - 미래의 자원봉사 의향
VI. 기 타	- 시설/기관/단체 신뢰성

(2) 조사의 기본설계

표본설계(sample design): 제시된 조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갤럽은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로 선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숙달된 전문 면접원이, Gallup의 표준조사진행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의 기본설계

구 분	내 용
1) 조 사 지 역	전국(제주도 제외)
2) 조 사 대 상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3) 표본추출방법	3단 층화 무작위 추출 (아래의 표본추출방법 참조)
4) 표 본 크 기	1,010명
5) 표 본 오 차	±3.1%P(95% 신뢰수준)

<표 3> 조사 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1) 조 사 방 법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자기기입식 병행)
2)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 사 기 간	2001년 1월 3일 ~ 1월 14일(12일간)

(3) 표본추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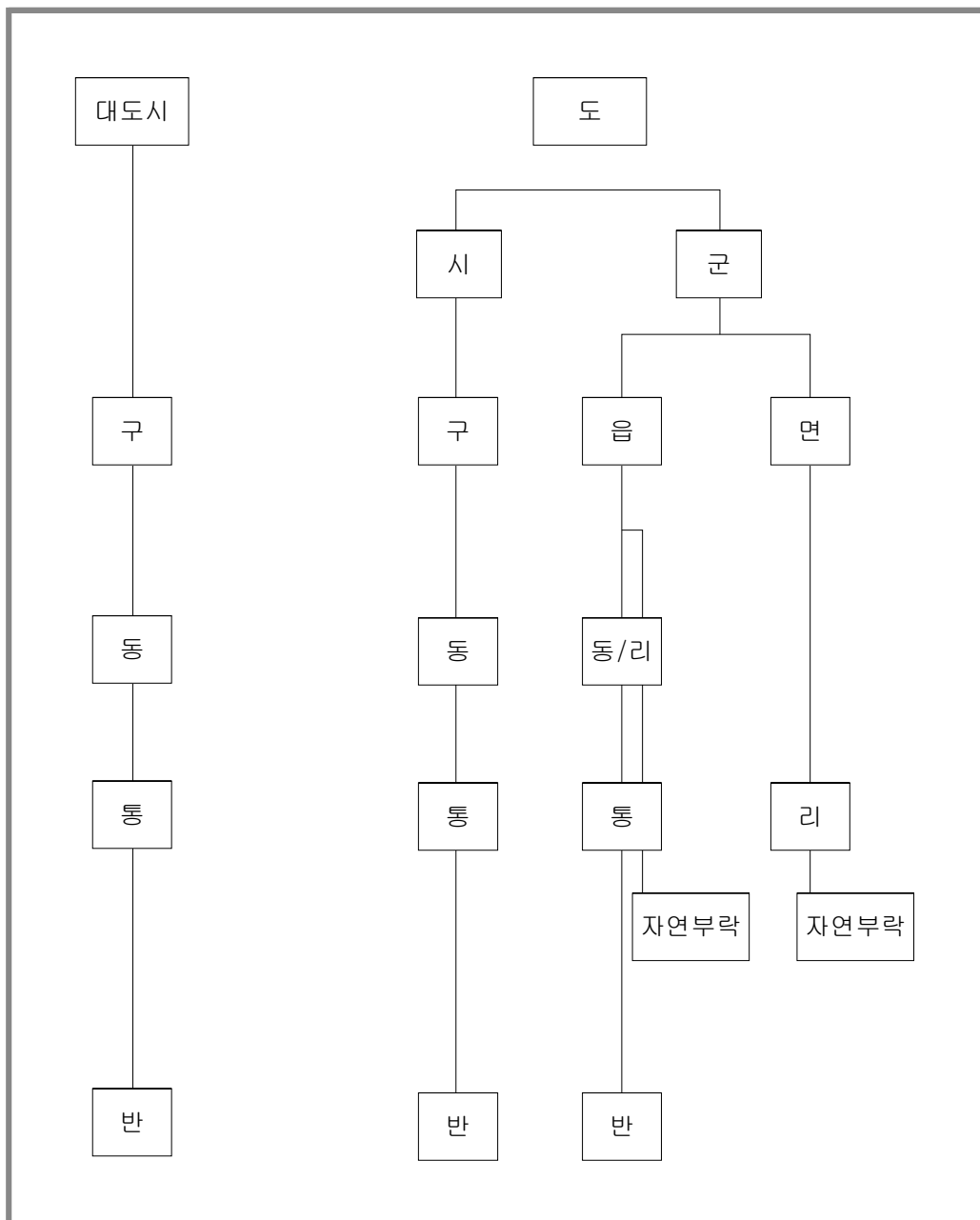
표본지점 SAMPLING은 인구비례확률추출법(PPS : 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의 원리에 따라 다단계 지역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에 의해 뽑혀지며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p>지역별 층화</p>	<p>전국을 광역행정단위별로 16개층, 즉 7대도시(특별시, 광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9도로 나누고, 도는 다시 행정단위별로 시, 읍, 면으로 구분한다.</p>
<p>인구수 비례 할당</p>	<p>표본추출을 하기전에 지역별, 지역크기별 모집단의 구성비에 따라 표본지점수를 계산한다. 모집단 비율은 1998년 행정구역 총감(행정구역 편찬위)을 준거로 하며, 표본지점수는 시지역의 경우 지점당 5~7가구, 읍, 면 지역은 지점당 10~12가구씩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계산한다. 단, 조사지점당 조사대상수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p>
<p>다단계 무작위 추출</p>	<p>최종 표본지점에 해당하는 실제 조사지점(반리 단위)을 다단계로 추출한다.</p> <p>1단계 추출 도시 : 특별/직할시 또는 해당 도 중 추출된 시에서 가구수 비례에 의해 지점수만큼 동을 무작위로 추출. 읍 : 해당 도에서 가구수 비례에 의해 지점수만큼 읍을 무작위로 추출. 면 : 해당 도에서 가구수 비례에 의해 지점수만큼 면을 무작위로 추출.</p> <p>2단계 추출 도시 : 추출된 동의 동, 반 리스트를 정리한 후 무작위로 통을 추출. 읍 : 추출된 읍내에서 동/리를 무작위 추출. 면 : 추출된 면에서 리를 무작위 추출.</p> <p>3단계 추출 도시 : 추출된 통의 통내에서 무작위로 반을 추출. 읍 : 추출된 통/리를 무작위로 반/자연부락을 추출. 면 : 추출된 법정 리내에서 한 개의 자연부락을 무작위로 추출.</p>
<p>최종 응답자 선정</p>	<p>면접원들은 미리 확인된 최종 표본 지점에서 주어진 Starting Point와 계통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면접하고, 거절 등 면접 불능시에는 일관된 확률적 방법에 따라 대체 면접 실시.</p>

* 추출된 표본지점이 상가, 공장 등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20% 정도의 예비조사지점을 추출한다.

(4) 최종응답자 선정

면접원들은 미리 확인된 최종 표본지점에서 주어진 Starting Point와 계통추출 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면접하게 된다. 거절등 면접 불능시에는 일관된 확률적 방법에 따라 대체한다.



* 전국의 표본추출은 한국갤럽연구소가 1995년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와

1998년 행정구역 총감을 토대로 자체 개발한 Random Sampling Program에 의한 전산작업으로 수행한다(샘플러Ver4.0).

4. 조사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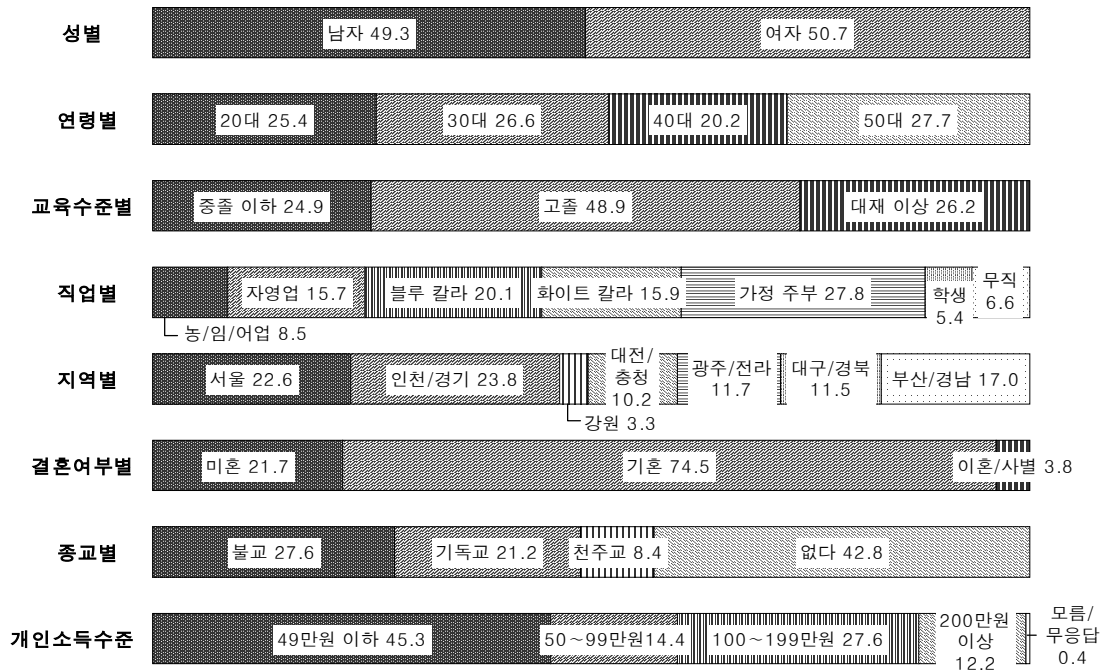
(1) 응답자의 특성

앞장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은 최종적으로 1,010명으로 확정되었다. 다음의 <그림 1>은 응답자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거주지역별, 결혼지위별, 종교별, 그리고 각 개인의 소득 수준별로 나눈 것이다. 우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선정된 표본 1,010명 가운데 남자는 498명, 여자는 512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세 이상의 성인들이 골고루 포함되었으며 40대가 20.2%로 가장 적은 수가 포함된 반면 50대 및 그 이상의 인구가 전체표본의 27.7% 포함되었다. 20대와 30대의 응답자는 각각 25.4%, 26.6%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졸학력의 응답자가 48.9%로서 거의 반수를 차지하는 반면, 중졸이하나 대학재학 이상의 응답자는 각각 24.9%와 26.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는 가정주부가 27.8%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블루칼라나 화이트칼라의 직업을 가진 응답자도 각각 20.1%와 15.7%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자영업자나 학생, 그리고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성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에서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이 17%, 광주전라가 11.7%, 대구경북이 11.5%, 대전충청이 10.3%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는 3.3%의 응답자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광역시를 나타내는 대도시 지역 거주민이 약 반수(50.3%)를 차지하는 반면에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민은 각각 35.1%와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결혼지위는 기혼자가 74.5%로서 전체응답자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혼자는 21.7%,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별로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2.8%로서 가장 많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종교별 분포는 불교가 27.6%, 기독교가 21.2%, 그리고 천주교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를 개인소득수준별로 나누어 본다면 49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들이 가장 많이(45.3%) 포함된 반면 2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12.2%에 불과하다. 이는 학생이나 가정주부, 그리고 무직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응답자의 가구별 소득에서는 99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단지 16.8% 뿐인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응답자의 가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는 남자가 92.4%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 가구주는 7.6%에 불과하다. 가구주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주의 직업은 자영업자와 화이트칼라 직업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가정주부, 학생, 그리고 무직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가구별 소득은 월 평균 100~199만원 사이가 약 40%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응답자 가구의 가족수는 3~4명이 압도적으로 많은 57%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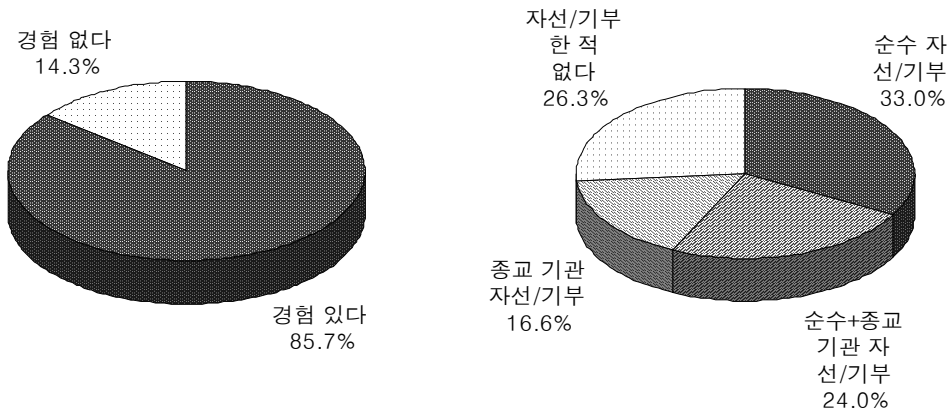
< 그림 1 >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2) 자선적 기부의 경험

본 조사의 첫 질문은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는가?”이다. 이 질문은 한편으로는 한국 성인의 기부경험 여부를 묻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기부 경험자와 기부 미경험자를 구분해서 각기 다른 질문으로 안내하는 출발점이 되는 문항이다. 가부의 경험여부도 일생동안 단 한번이라도 기부한 적이 있는 경우와 이 조사의 주된 관심 시기인 2000년 한해 동안의 기부경험 여부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한편 이 조사 결과의 분석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를 포함한 경우와 종교시설이나 단체를 제외한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우선 <그림 2>에서와 같이 85.7%의 응답자들이 일생을 통해서 적어도 한번 이상의 기부경험이 있는 반면에 14.3%의 응답자들은 기부한 경험이 없다. 기부의 경험여부를 인구집단별로 더욱 세분해서 살펴본다면 남녀별, 연령대,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에 따른 기부의 경험여부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거주지역에 따

라서는 약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 서울지역의 응답자 가운데



<그림 2> 자선/기부 경험 여부

<그림 3> 2000년 자선/기부 여부

기부를 한 사람의 비율이 전국의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반면, 부산경남지역(95.8%와 4.2%)이나 광주와 전라지역(94.1%와 5.9%)은 기부를 해 본 사람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결혼지위에 따라서도 기부경험의 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미혼자나 기혼자는 기부의 경험여부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지 않지만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 가운데 기부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종교의 유무도 기부의 경험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데, 종교가 없는 집단은 기부를 한 경험이 72.8%인 반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기부를 해 본 비율이 훨씬 높다. 종교인들 가운데 천주교인과 기독교인의 기부경험 비율이 특히 높는데 천주교인들의 98.4%, 기독교인들의 97.4%가 기부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이들 종교인들이 교회나 사찰에 순수 종교적인 목적으로 내는 헌금이나 시주도 넓은 의미의 기부로 간주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기부의 경험여부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기부의 경험여부에서 전체적인 평균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첫째, 지역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응답자들이 전국평균보다 기부경험이 적는데 반해 강원지역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며, 강원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혼이나 사별한 집단에서 기혼이나 미혼 집단에 비해 기부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종교가 기부의 경험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천주교인과 기독교인의 기부 경험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그것보다 빈번하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해, 즉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해동안 기부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그림 3>이 보여주듯이 작년

에 기부를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26.3%인 반면 기부한 사람의 비율은 73.7%이다. 기부 경험자는 다시 종교기관에만 기부한 경우, 순수자선적 기부만 한 경우, 그리고 두가지 기관에 모두 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작년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기부 경험이 많고, 20대가 30대 이상의 다른 연령집단보다 기부경험이 적으며, 교육수준이나 직업별로는 기부 경험여부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직업범주에서 무직자의 경우 당연한 사실이지만 기부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반면, 학생집단이 기부를 경험한 비율이 높다. 지난해 종교집단별 기부 경험여부는 전체적으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기부경험이 높고 기독교도나 천주교도의 기부경험 비율이 불교도보다 약간 높다. 하지만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를 제외한 순수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만을 고려한다면 불교를 가진 응답자의 기부경험의 비율(27.5%)이 다른 종교집단, 즉 기독교의 15.2%나 천주교의 13.3%보다 두배 가까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나 천주교를 자신의 종교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가 전체 기부경험에 많이 반영된 것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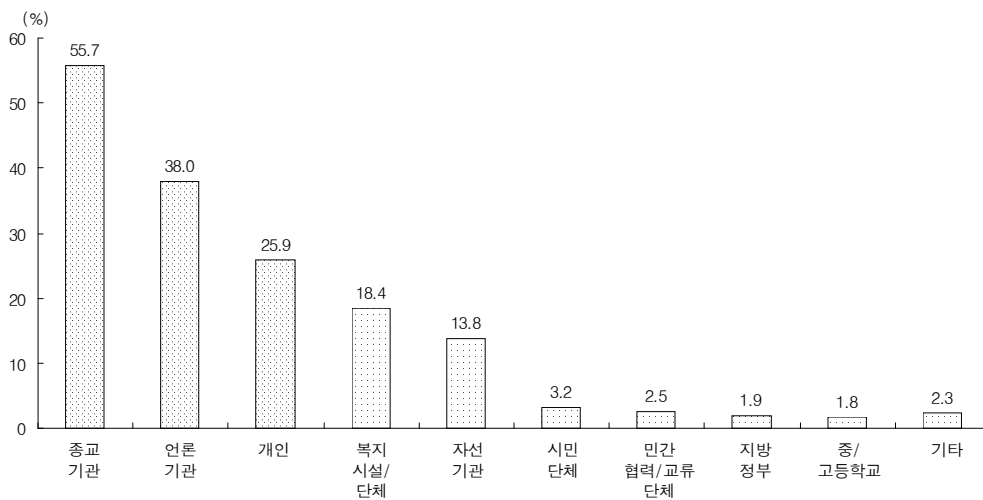
(3) 한국 성인의 기부처

한국의 성인들은 어디에 자선적 기부금을 내는가? 2000년 한해동안 자선적 기부를 한 시설, 기관, 그리고 단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복응답을 포함해서 전체 744사례가 보고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기부처로 지목된 기관은 <그림 4>가 보여주듯이 종교기관(55.7%), 언론기관(38%), 개인(25.9%), 사회복지 시설이나 단체(18.4%), 그리고 자선단체(13.8%)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근 정부지원금 등 재정문제에 관한 논란의 초점이 되어온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는 3.2%에 머무르고 있다. 기타 국제협력단체나 지방정부, 중고등학교에 기부한 사람은 1-2% 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이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일반 성인들의 기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기관을 제외하고 기부처를 파악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즉 비종교적인 목적의 기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기부하는 곳은 어디인가? 우선 전체적으로 기부처별 빈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론을 통한 기부가 49.1%로서 모든 기부사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에 대한 기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자선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기관을 제외해도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4.1%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한국인이 가장 빈번히 기부를 하는 기부처는 종교기관이나 언론기관이지만 사회복지시설과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누가 특정한 기관에 더욱 빈번히 기부하는가에 대한 통계는 전체적인 기부처와 약간

다른 특징을 보인다. 종교기관을 제외한 기부처 통계에 의하면 우선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는 교육수준별로 대학재학이상의(8.2%) 서울지역거주자(10.4%)가 시민단체에 대한 전체 평균(4.1%)보다 더욱 빈번히 기부를 하는 반면, 50세 이상이거나(1.5%), 중졸이하이거나(1.0%)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직업(0%)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언론기관에 대한 기부는 지역별로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81.8%)이나 대전충청지역(63.8%), 그리고 부산경남지역(60.9)이 언론에 대한 기부빈도가 가장 높은 반면, 광주전라지역(8.1%)이나 강원지역(9.8%)은 언론에 대한 기부가 예외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도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전체 평균이 23.8%인 반면



<그림 4 자선/기부한 곳>

연령별로 20대 인구층의 8.5%만이, 학생들은 9.5%만이, 그리고 미혼자의 9.6%만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0만원 이상의 상대적인 고소득자의 경우나(40.9%)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직업군(36.6%), 그리고 40대의 연령층(36.5%)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 빈도가 다른 인구 집단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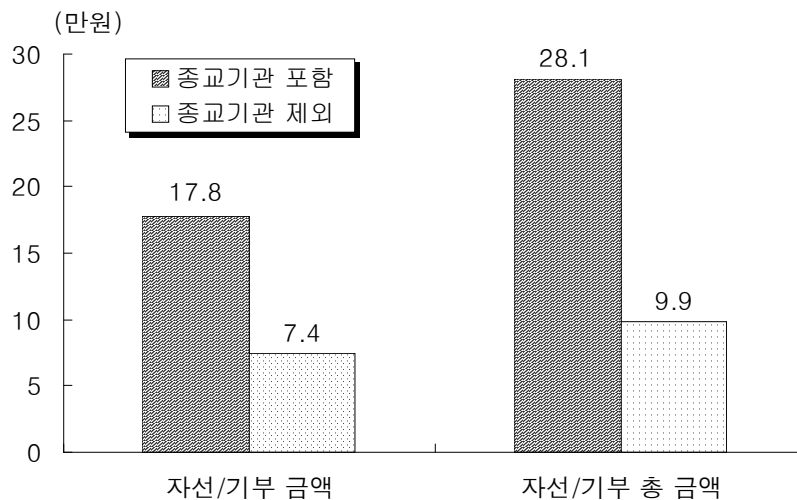
(4) 한국인은 얼마를 기부하는가?

한국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작년 한해동안 얼마의 돈과 물품을 기부했는가? 이 조사에서는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한 경우와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현황을 따로 분석하였다. 우선 종교적인 목적의 기부금을 포함하면 금번 조사에서 기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44명 가운데 자신의 기부처와 기부금액을 밝힌 737명이 총 1,222건의 기부를 하였으며, 이는 한 사람이 평균 1.66건의 기부를 한 것이

다. 아래의 <그림 5>가 보여주는 것은 한 사람의 일년동안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280,920원이며 한 건당 기부금액은 177,690원이다.

종교기관을 포함한 분석에서 자신의 기부금액을 밝힌 737명의 기부금의 액수는 적게는 9,000원 이하에서부터 많게는 100만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기부금액의 범주는 역시 9,000원 이하의 소액기부자들로 전체 기부경험자의 16.7%가 9,000원 이하 소액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0만원이상의 고액기부자도 무려 10.4%에 달하고 있다. 소액기부자 그들은 누구인가? 9,000원 이하의 소액기부자는 우리가 잘 예상할 수 있듯이 연령적으로는 20대에서, 직업적으로는 학생이나 무직층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100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자들은 누구인가? 우선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는 직업적으로 자영업자인 경우와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에게서, 그리고 소득수준에서는 월평균 200만원이상의 소득자 집단에서 그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약 2배정도 높다. 반면에 학생이나 무직자, 1차산업 종사자나 블루칼라 직업군에서는 고액기부자의 비율이 평균비율보다 낮으며, 지역적으로는 강원지역과 대구경북지역에서, 연령적으로는 20대에서 고액기부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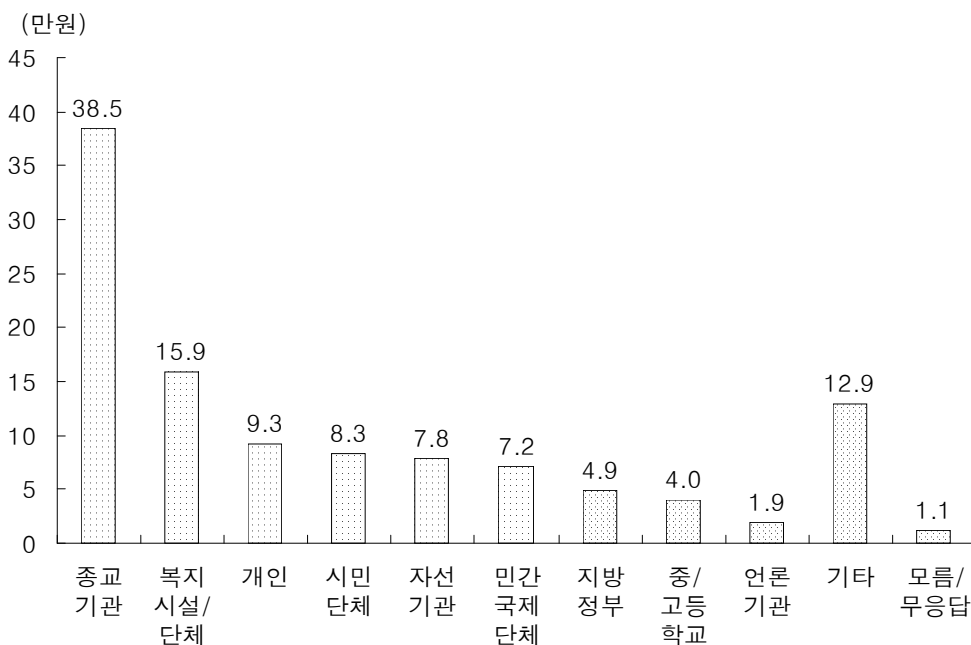
한편 기부금 액수의 현황을 종교기관을 제외하고 파악했을 경우에는 그 현황이 많이 달라진다. 종교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 대해 571명의 기부자가 812건의 기부를 했는데 한사람당 평균적으로 2,000년 한해 동안의 기부금액은 98,660원이고 한 사례당 기부금액은 74,100원이다(그림 5). 이는 앞서 논의한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를 포함한 경우에 비해 평균기부액이 각각 35%, 42%에 불과해진다. 특히 종교적 기부를 제외했



<그림 5> 2000년 자선/기부 금액

을 경우 고액 기부자군에서 그 비율이 가장 현저한 변화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만원-49만원 기부금액의 범주에서는 12.4%에서 3.8%로, 50만원-99만원 기부금액의 범주에서는 7.4%에서 3.2%로, 그리고 100만원이상의 고액기부자의 비율은 10.4%에서 3.2%로 줄어든다. 반면에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를 제외한 경우 9,000원 이하의 소액기부자의 비율은 16.7%에서 32.4%로, 1만원-2만원 기부금액의 범주에서는 12.7%에서 21.4%, 그리고 2만원-3만원 기부금액의 범주에서는 5.9%에서 10.9%로 현저히 늘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적인 목적의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가 한국의 전체 기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며 특히 고소득 기독교인들의 교회헌금이 전체 민간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종교기관을 제외한 통계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고액 기부자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지 않은 사실에서 잘 알 수가 있다.

아래의 <그림 6>은 주요 기부처별 자선적 기부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기관이 사례당 기부금이 38만원을 상회하는데 반해 언론기관에 대한 사례당 기부액수는 2만원을 약간 밑돌고 있다. 종교기관 다음으로 복지시설이나 단체, 개인, 그리고 시민단체나 자선단체 순으로 사례당 기부액수가 높다. 다음에 나오는 <표 4>와 <표 5>, 그리고 이어지는 그림들은 주요 배경변수별 2000년 한해동안의 기부건 당 평균 기부액과 한사람 당 총기부액을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 포함한 경우와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를 제외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본 것인데 주요 범주별 기부액수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기부처별 자선/기부 금액

<표 4> 주요 인구집단별 기부금액의 평균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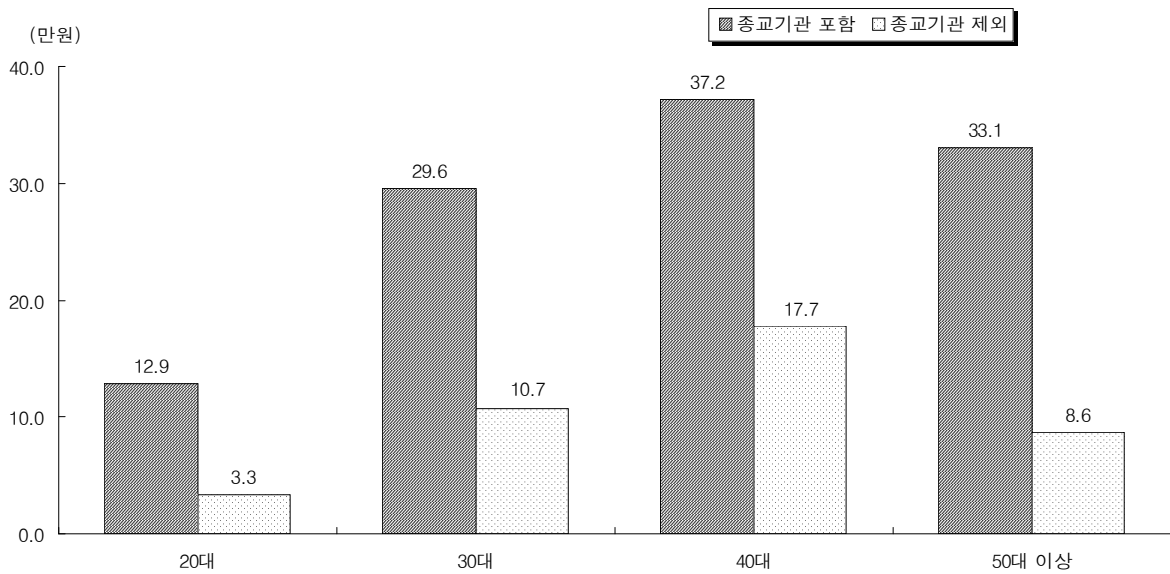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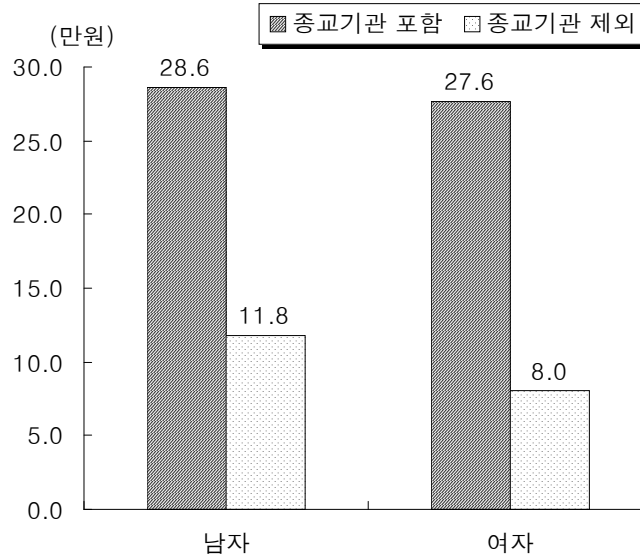
		기부건수별 평균금액(N) [종교포함]	기부개인별 평균금액(N) [종교포함]	기부건수별 평균금액(N) [종교제외]	기부개인별 평균금액(N) [종교제외]
전 체		177.69(1222)	280.92(737)	74.10(812)	98.66(571)
성 별	남 자	184.92(563)	286.30(335)	85.51(410)	118.08(279)
	여 자	171.52(659)	276.43(402)	62.46(402)	80.14(293)
연 령 별	20대	90.48(245)	128.79(178)	25.04(176)	33.31(146)
	30대	171.42(401)	295.86(203)	70.94(277)	107.58(169)
	40대	229.15(306)	372.18(152)	124.57(204)	177.45(122)
	50세 이상	208.81(270)	330.81(204)	69.48(155)	86.76(134)
교육수준 별	중졸 이하	150.67(252)	231.13(180)	60.30(142)	78.02(117)
	고 졸	156.29(627)	246.65(365)	68.33(422)	90.07(291)
	대재 이상	236.10(343)	392.24(193)	91.62(248)	128.62(164)
직 업 별	농/ 임/ 어업	106.15(96)	162.41(63)	32.90(61)	44.18(44)
	자 영 업	337.66(202)	549.81(113)	152.28(134)	220.40(85)
	블루 칼라	95.07(236)	140.53(145)	52.59(161)	65.30(118)
	화이트칼라	194.11(206)	319.96(113)	76.52(153)	114.22(104)
	가정 주부	190.57(370)	325.07(218)	69.63(225)	91.43(157)
	학 생	48.60(57)	67.97(44)	26.10(40)	29.14(36)
	무 직	55.25(55)	97.00(39)	23.41(38)	28.64(29)
지역별	서 울	253.15(197)	357.03(128)	147.19(115)	169.13(85)
	인천/ 경기	224.99(223)	298.41(161)	124.68(139)	147.86(119)
	강 원	232.00(32)	225.70(27)	37.71(22)	26.80(20)
	대전/ 충청	145.54(157)	259.86(86)	67.53(102)	95.82(69)
	광주/ 전라	192.84(174)	317.77(96)	58.43(118)	86.03(74)
	대구/ 경북	108.05(153)	155.44(93)	36.54(94)	40.71(72)
	부산/ 경남	141.96(286)	273.14(145)	35.76(222)	59.72(132)
지역크기 별	대 도 시	177.83(567)	286.82(334)	85.55(370)	112.09(257)
	중/ 소도시	192.83(484)	301.04(288)	61.55(332)	83.64(226)
	읍 / 면	134.40(171)	212.93(114)	73.54(110)	98.12(88)
결혼여부 별	미 혼	82.09(217)	125.58(153)	36.11(159)	48.13(129)
	기 혼	199.66(963)	323.74(551)	84.66(632)	116.90(421)
	이혼/ 사별	177.69(42)	283.37(33)	49.05(21)	44.6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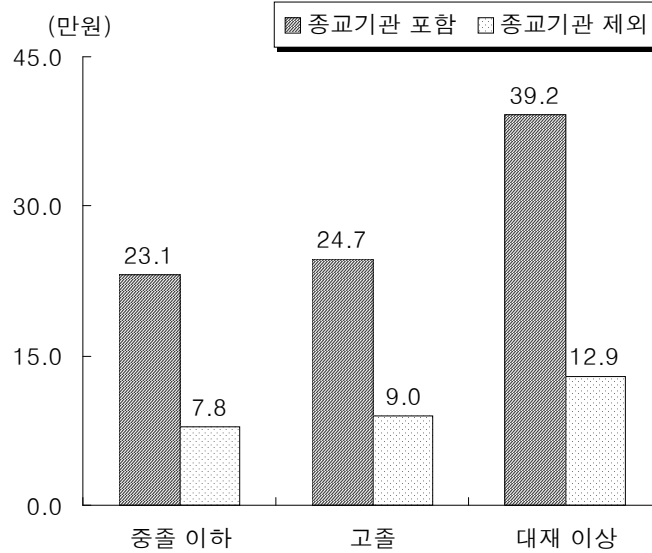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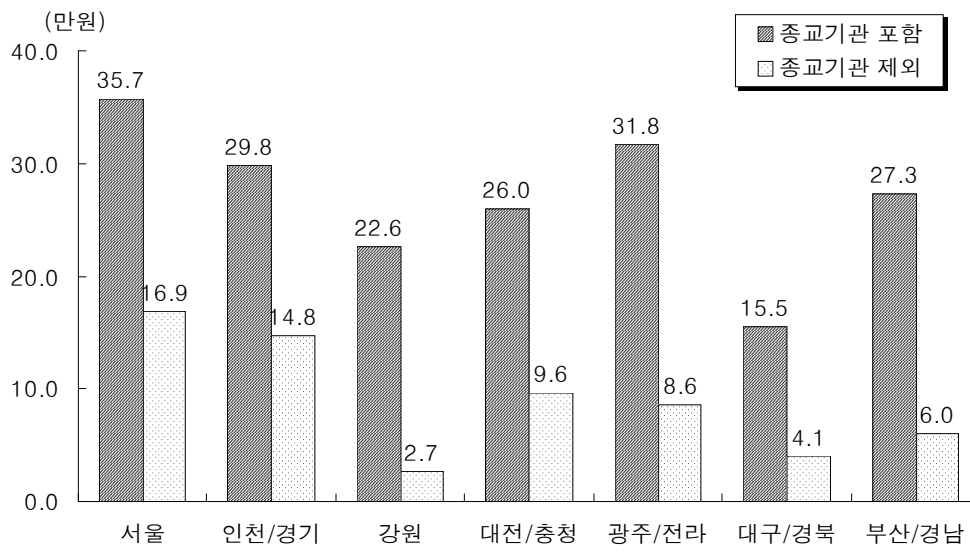
<표 5> 주요 인구집단별 기부금액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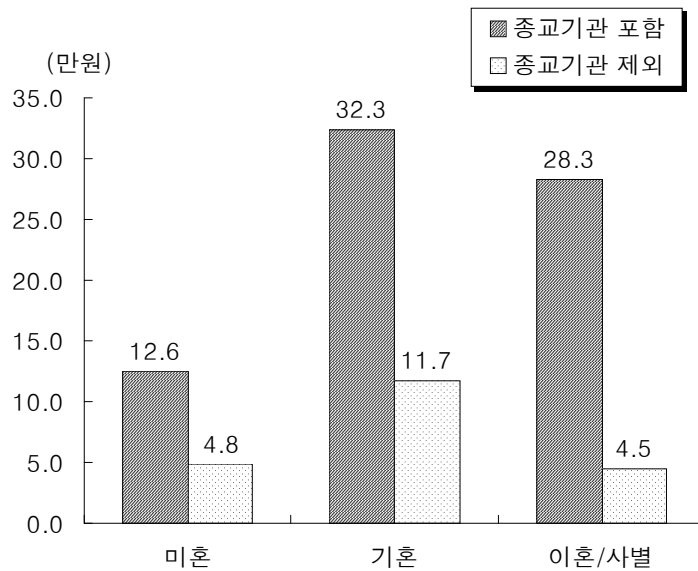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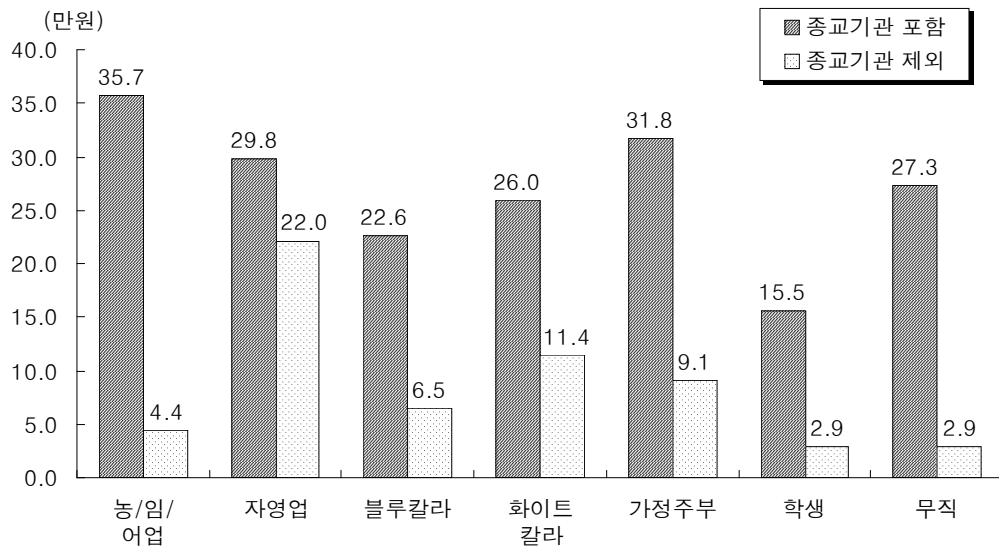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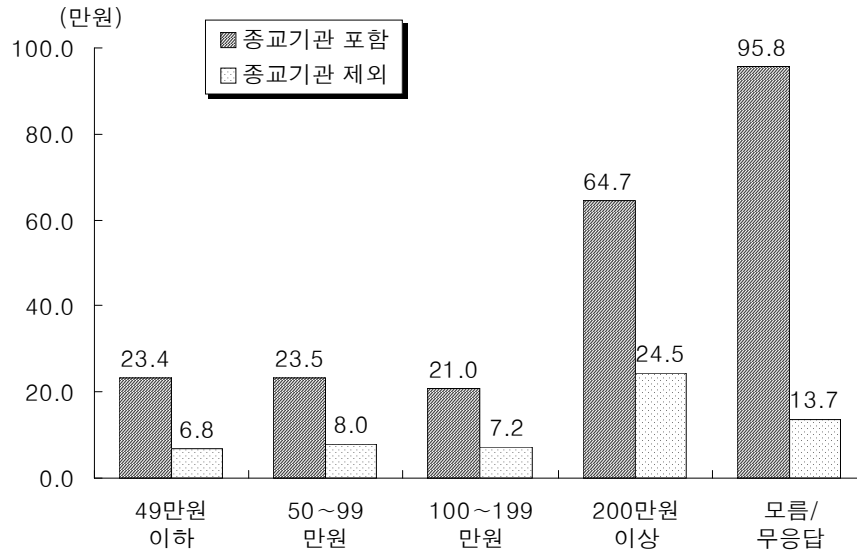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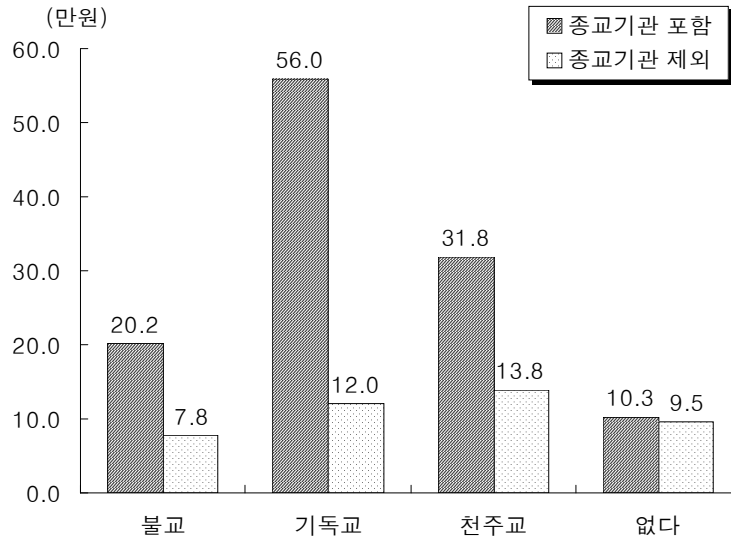
		기부건수별 평균금액(N) [종교포함]	기부개인별 평균금액(N) [종교포함]	기부건수별 평균금액(N) [종교제외]	기부개인별 평균금액(N) [종교제외]
종교별	불 교	111.59(396)	202.35(233)	56.37(244)	78.01(179)
	기 독 교	351.67(347)	569.14(200)	96.61(175)	119.79(123)
	천 주 교	188.38(142)	317.50(78)	108.04(74)	137.77(49)
	없 다	72.56(337)	102.63(226)	67.63(319)	94.87(221)
개인 소득 수준	49만원 이하	144.95(543)	234.08(342)	54.04(340)	68.31(249)
	50~90만원	145.83(177)	234.54(114)	58.18(118)	80.84(87)
	100~199만원	138.97(318)	209.41(188)	56.56(221)	71.52(158)
	200만원이상	364.21(180)	646.50(90)	152.57(130)	245.19(77)
	모름/무응답	715.50(4)	957.53(3)	837.33(3)	1365.9(2)
기부처 별	복지시설/단체	159.23(141)	.	159.23(141)	.
	종교 기관	384.86(410)	.	.	.
	시민 단체	83.12(25)	.	83.12(25)	.
	문화예술단체	100.00(1)	.	100.00(1)	.
	민간국제단체	71.71(17)	.	71.71(17)	.
	중·고등학교	40.15(13)	.	40.15(13)	.
	민간의료기관	12.00(3)	.	12.00(3)	.
	자선 기관	78.01(100)	.	78.01(100)	.
	노동 조합	51.67(3)	.	51.67(3)	.
	중 / 소기업	50.00(1)	.	50.00(1)	.
	지방 정부	49.46(13)	.	49.46(13)	.
	정 당	75.00(2)	.	75.00(2)	.
	언론 기관	19.00(285)	.	19.00(285)	.
	이익 단체	200.00(2)	.	200.00(2)	.
	개 인	92.81(196)	.	92.81(196)	.
	지역 사회	347.00(3)	.	347.00(3)	.
	모름/무응답	11.43(7)	.	11.43(7)	.

<주요 인구집단별 기부금액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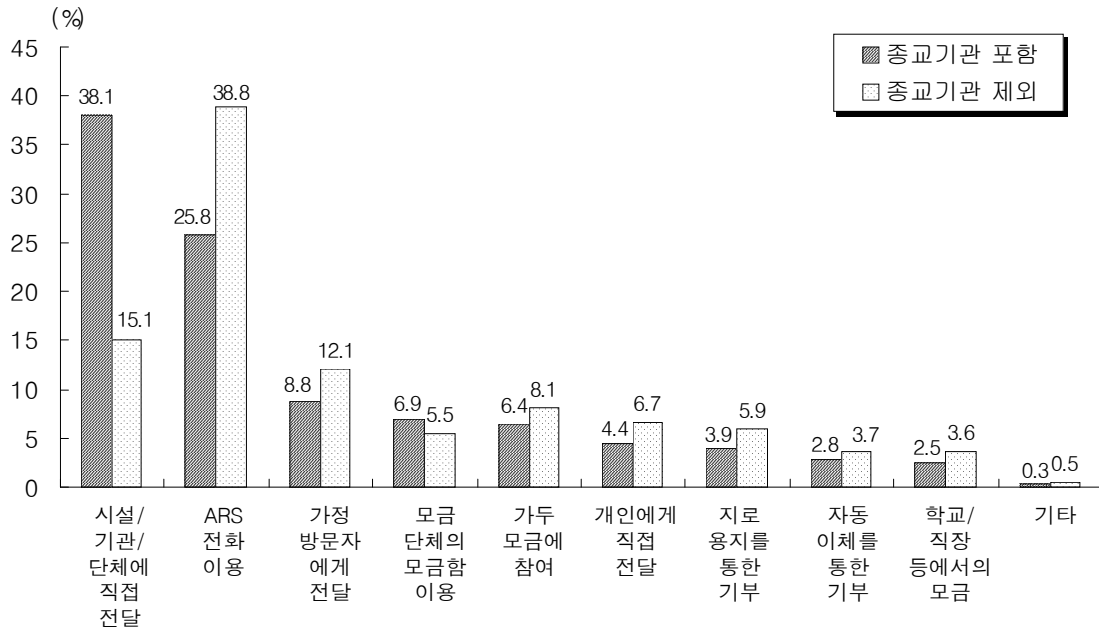
(5) 자선과 기부의 방법

한국인은 금전이나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기부에 관심을 가진 개인 기부자나 모금기관, 그리고 비영리단체 모두에게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를 포함해서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부의 방법은 1,222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항은 사전에 미리 준비한 다양한 종류의 기부방법을 응답자들에게 보기카드로 제시하고 기부자들이 자신들이 특정한 기관에 기부한 각 사례에 대해 그 때 사용한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한해동안 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기부의 방법은 기부를 원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본인이 직접 전달(38.1%)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기부의 방법은 ARS전화를 이용하는 방법(25.8), 가정방문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8.8), 모금단체의 모금함을 이용하는 방법(6.9%), 그리고 가두모금에 직접 참여해서 기부하는 방법(6.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선이벤트에 참여하거나(0.2%) 자동이체를 통한 기부(CMS)와 같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기부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의 빈도는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최근 정보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한 자선적 기부를 하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단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처에 따라 특정의 기부방식이 많이 사용되는데 우선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직접기부의 방식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특히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는 전체의 83.8%가 직접 전달하는 기부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ARS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압도적으로(90.6%) 선호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 대한 기부는 학교나 직장에서의 단체모금에 참여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 외 한국인은 지로용지를 통한 기부의 방법과 자동이체를 통한 기부의 방법을 가끔씩 사용하고 있다.

한편 종교기관을 제외한 경우, <그림 7>에서와 같이 812건의 기부 건수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기부의 방법은 ARS전화를 이용한 것이고(38.8%), 그 다음으로는 시설이나 기관에 직접 전달하거나(15.1%), 가정방문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12.1%)이다. 결국 종교기관을 제외한 순수한 자선적 기부의 경우 ARS전화를 이용해서 언론에 기부하는 것이 기부의 가장 주된 방법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ARS전화를 이용해서 언론사에 기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그 액수도 소액이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하지만 기부의 방법은 기부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 언론기관의 경우 95.4%가 ARS전화를 이용하며, 사회복지단체는 직접 전달의 방식이나 가정방문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또 자동이체를 통한 기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기부의 경우에도 가장 흔히 사용하는 기부의 방법은 직접전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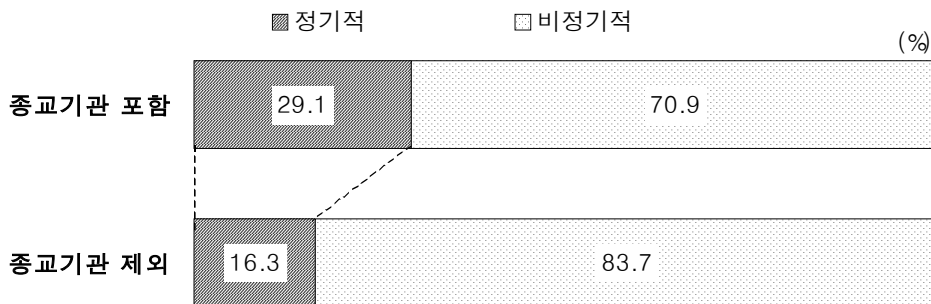
(32%), 가두모금에 참여하는 방법(28%), 그리고 지로용지를 통한 기부(16%)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자선/기부 방법

(6) 기부의 정기성

2000년 한해 동안 자선적 기부행동이 어느 정도 정기적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의 <그림 8>이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인의 기부행위는 대단히 비정기적이다. 물론 비정기적인 기부를 일회적인 기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약 70%정도가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며, 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자의 가족들은 약 60% 정도가 비정기적인 기부자들이다. 특히 종교기관을 분석에서 제외한다면 무려 83.7%의 응답자들이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추구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선적 기부금을 재정적인 원천으로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단체 및 자선기관, 그리고 공익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후원자를 확보하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자선/기부 정기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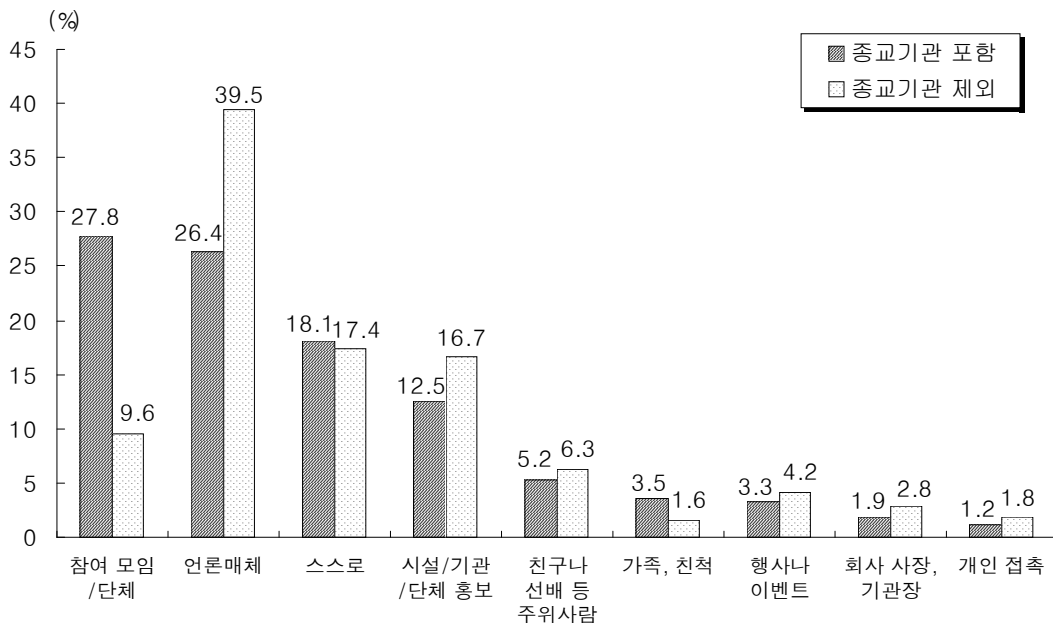
(7) 기부처의 접촉경로

일반 기부자들이 어떻게 자신이 기부한 기부처를 알게 되었으며 특히 다양한 종류의 기부대상 가운데 특정한 기부처와 접촉한 경로가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이 보고한 전체 사례수 1,222건을 분석하면 <그림 9>와 같이 전체적으로 약 9가지 방식으로 기부처를 접촉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한 경로는 4가지 방법이다. 첫째, 기부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서 접촉한 경우가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 410건 가운데 63.9%의 응답자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를 통해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신문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촉한 경우는 26.4%로 나타났는데, 특히 언론기관에 기부한 경우 전체 285건 가운데 90%이상이 언론을 통해 접촉한 경우이다. 셋째, 스스로 찾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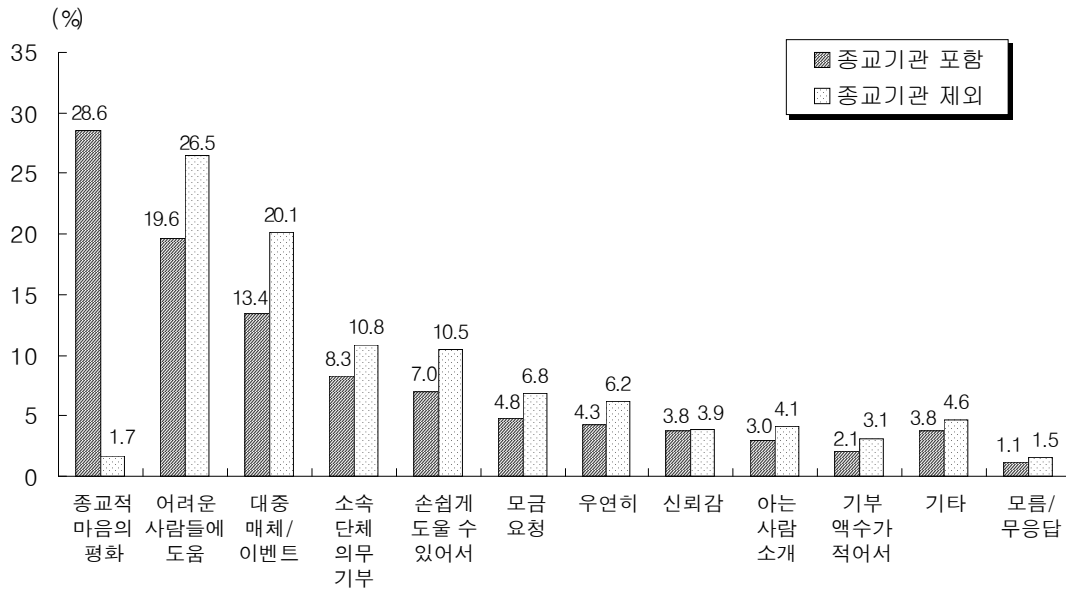
18.1%이고, 시설기관단체의 홍보를 통해서 접촉한 경우는 12.5%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한 응답자는 각각 31%와 20%의 비율로 홍보를 통해 접촉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의 모금이나 자선적 기부에 관한 홍보전략의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8) 기부처의 선택이유

종교기관의 사례를 포함해서 돈이나 물품을 자신이 선택한 기부처에 기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림 10>에 나타나듯이 여러 가지의 이유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종교적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28.6%),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19.6%), 대중매체나 이벤트를 통해서(13.4%) 기부한 경우이다. 하지만 모금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기부를 한 경우는 4.8%에 불과해 미국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국의 Independent Sector(1999)에서 발표한 기부지수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왜 기부를 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기부



<그림 9> 자선/기부처 접촉경로



<그림 10> 자선/기부처 선택 이유

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종교기관을 제외한 분석에서는 기부처별로 그 기부처를 선택한 이유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복지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기부처인 경우, 양 기관에 공통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소속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기부를 한 경우”가 많이 지적되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동정심이나 자선적인 마음이 기부의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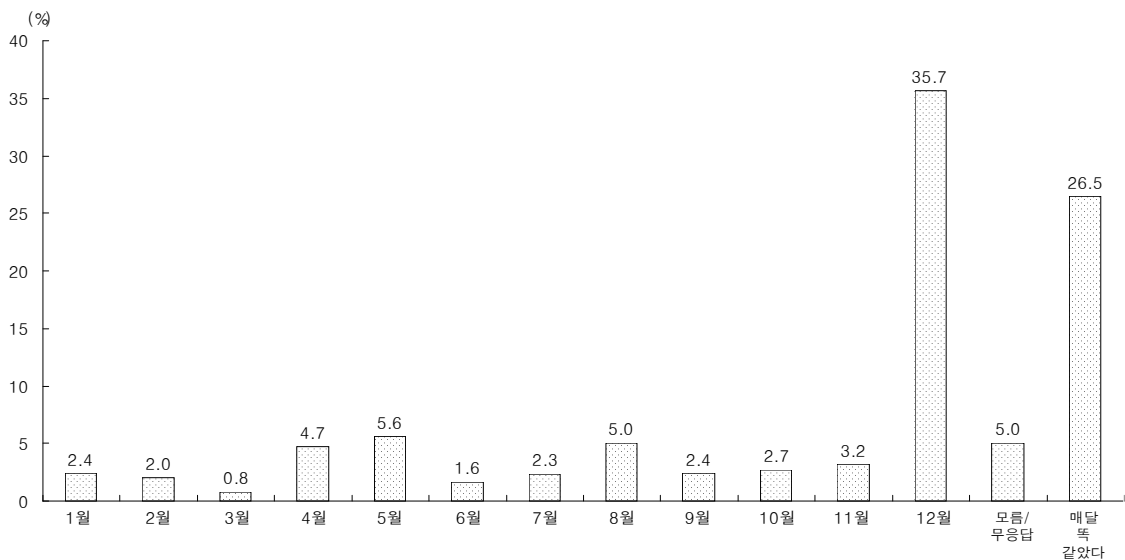
(9) 기부가 많은 달과 적은 달

일년 가운데 어느 달에 가장 기부를 많이 하며 언제 기부를 가장 적게 하는가? 계절에 따라 기부 빈도나 수준이 다른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우선 다음의 <그림 11>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26.5%가 매달의 기부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성인들은 12월, 5월, 그리고 8월에 다른 달보다 더욱 빈번히 기부하고 있다. 2000년 한해동안 기부가 가장 많았던 달은 12월로서 35.5%의 응답자들이 12월을 기부가 가장 많았던 달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5.6%의 응답자가 5월에, 그리고 5%의 응답자가 8월달에 가장 기부가 많은 달로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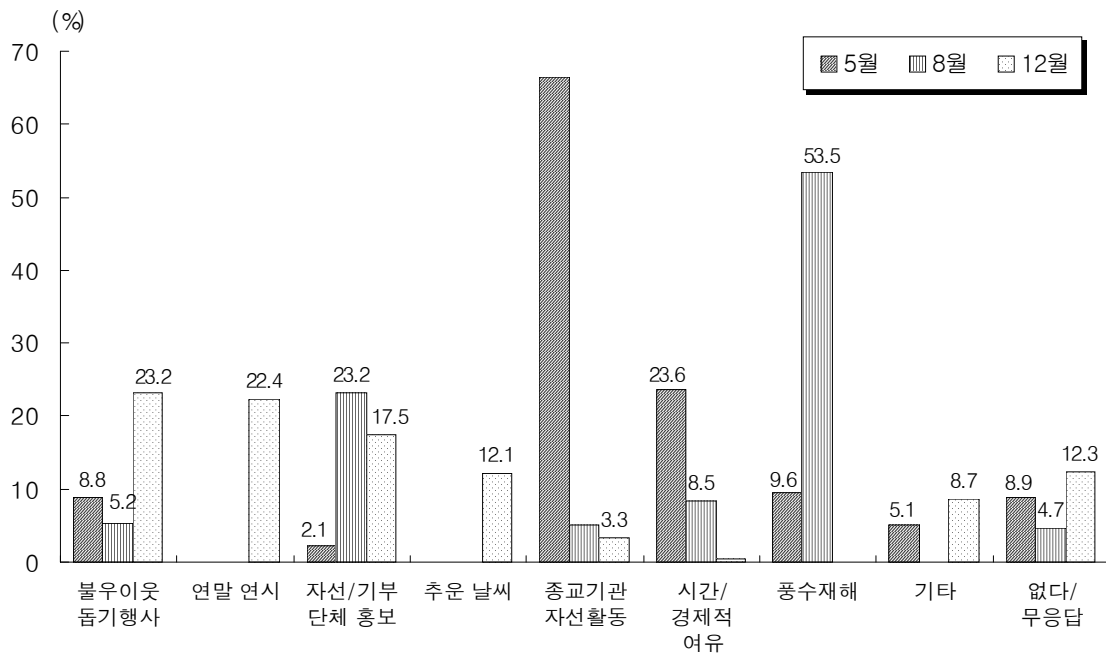
특정한 달에 기부가 많다고 응답한 이유는 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림 12>에서 보듯이 보통 자선과 기부의 시기로 알려진 12월에 기부가 많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많아서, 또는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선기부

단체의 홍보 때문에 기부가 많았다고 대답하고 있다. 한편 8월에 기부가 많은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무려 50%이상의 응답자들이 태풍 등의 풍수해를 입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 달에 기부를 많이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5월은 종교적인 이유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종교기관의 자선활동, 특히 불교도들이 자선활동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1999년과 비교한다면 2000년에는 자선과 기부금액에서 특별히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반수가 훨씬 넘는 57.3%의 응답자들이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1999년과 비교한 2000년의 기부금액의 비율을 전년도의 98.59%로 나타나 1999년보다 2000년에는 기부액수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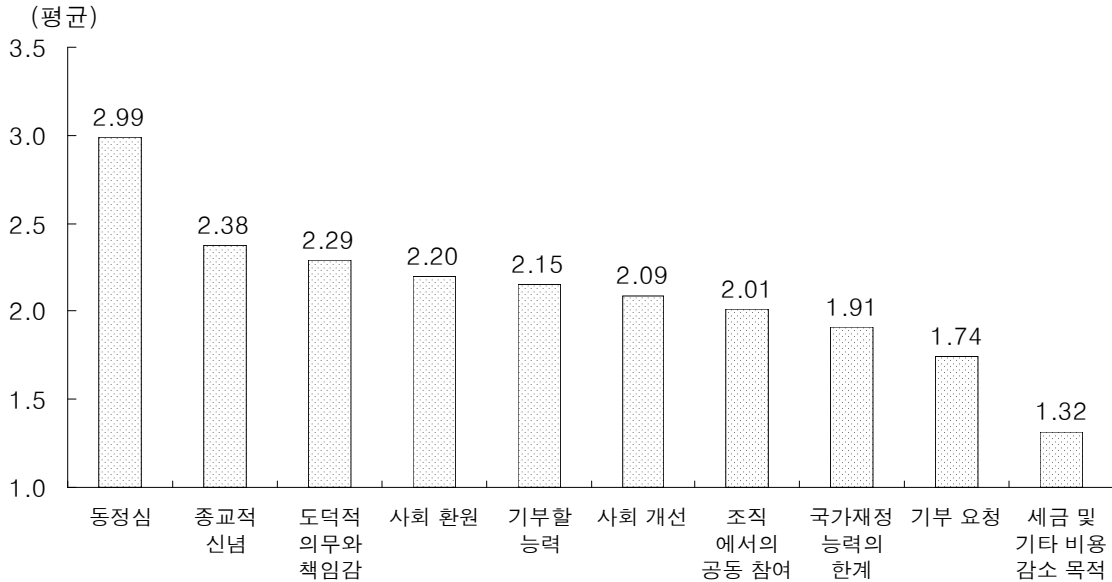
<그림 11> 자선/기부가 가장 많았던 달



<그림 12> 그 달에 자선/기부가 많았던 이유

(10) 자선적 기부의 동기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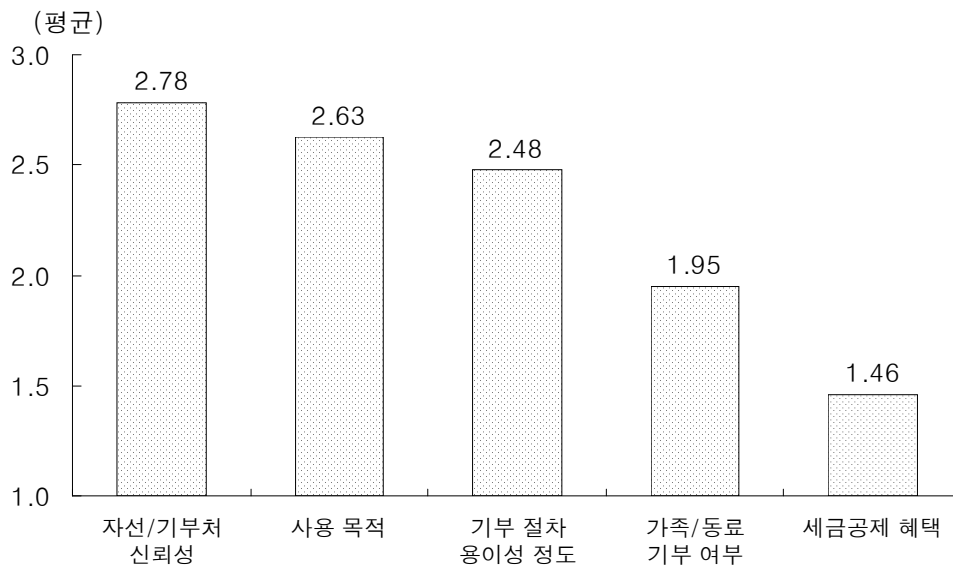
이 질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흔히 지적된 자선과 기부의 이유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도출된 모두 10가지의 자선과 기부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해 각각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강하게 동의하는 척도인데, 응답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동의하는 기부의 이유는 단 하나에 불과하다. 그것은 아래의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에서 기부한다”는 것이다. 이 문항의 점수는 4점 만점에 2.99로서 긍정의 비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지만, 다른 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약간 부정 또는 강하게 부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응답자들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기부의 이유는 “연말정산 등의 세금과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기부한다(1.32)”라는 응답과 “단지 기부를 요청받았기 때문이다(1.73)”라는 응답이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따라 기부한다는 응답(2.38)과 부의 사회환원(2.20)이나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감과 책임감(2.29), 그리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2.15)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 재정능력의 한계(1.91)나 사회개선에 대한 확신(2.09)도 기부행위의 이유로서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 자선/기부하는 이유

한편 기부의 이유와 비슷하지만 성격이 약간 다른 문항으로는 자선이나 기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의 영향력에 관한 문항이다. 모두 4가지의 문항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강하게 긍정적인 요소를 순서대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기관/단체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의 정도(2.78)와 기부된 자원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의 여부(2.63)에 가장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의 절차를 포함해서 기부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의 정도(2.48)도 그 강도는 약하지만 여전히 기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하지만 세금공제의 혜택이 있는지의 여부(1.46)나 나의 가족이나 동료들이 기부를 하는지의 여부(1.95)는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다. 세금공제여부가 아직은 기부를 결정할 때 영향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자신이 기부한 돈이 연말정산시 세금공제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는 54.9%에 달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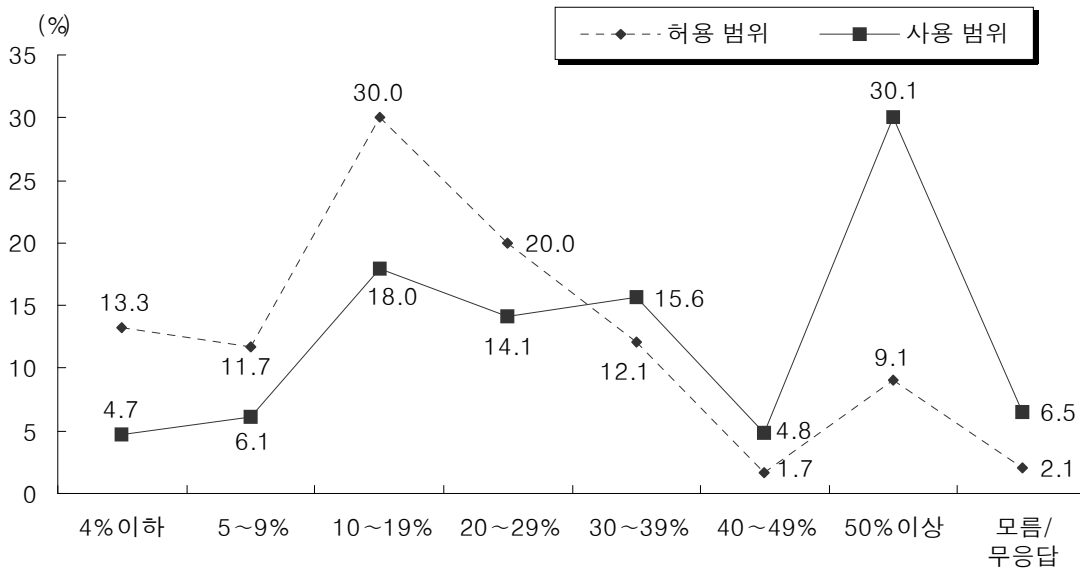


<그림 14> 자선/기부시 고려 사항

(11) 기부단체 운영 및 행정비용

자선적 기부금을 대해 순수 목적사업을 제외한 행정이나 활동비용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면 기부금품의 5%만을 행정비용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모금된 기부금 가운데 어느 정도를 행정비용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두 문항을 제시했는데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비용의 허용범위와 현재 모금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 14>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866명의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모금액의 17.84%를 허용가능한 비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는 얼마의 기부금이 행

정비용으로 실제 쓰여진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평균적으로 전체모금액의 32.46%를 사용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기부자들이 자신들의 기부금에서 실제로는 자신이 인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행정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모금의 목적과 투명성에 대한 간접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서는 놀랍게도 전체 모금액의 50%이상을 행정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무려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기관이나 비영리조직은 행정비용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회계나 재무자료를 기존의 기부자들이나 잠재적 기부대상자들에게 하루빨리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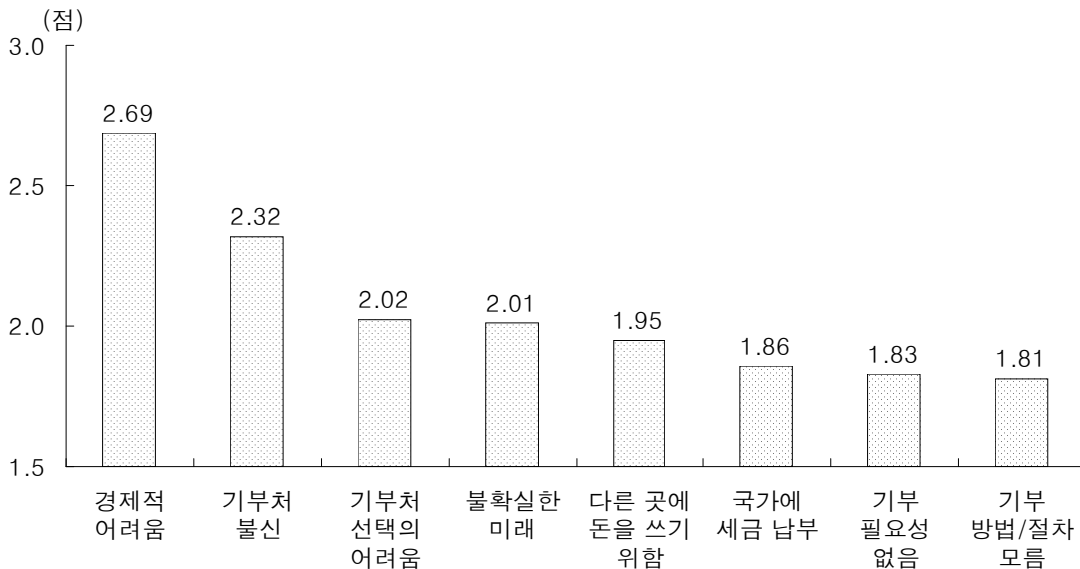
<그림 15> 기부단체 행정/운영 기금 허용 및 사용 범위

(12)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금번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서베이 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85.7%에 해당하는 744 명이 지금까지 분석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반면 첫 번째 문항에서 기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44명은, 기부경험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건너뛰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응답을 하였다. 이들에게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모두 8가지가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동의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지적하였다. <그림 16>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자선적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각되지 않았으나 제시된 8가지 이유 가운데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강하게 긍정하는 (2.69) 이유로 지적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부처를 불신하는 것(2.32), 기부처 선택의 어려움(2.02),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부하지 못한다(2.01)는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른 4문항에 대해서는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 긍정하기보다는 부정하는 경향이 더 높다. 이를테면 기부의 방법과 절차를 모르기 때문(1.81)이라는 문항과 기부의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항(1.83)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기부하지 않는다는 응답(1.81)과 차라리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싶다(1.95)와 같은 문항에 대해서도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들 문항 가운데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부를 요청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다. 이는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기부대상 기관들의 재정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금기관과 기부처를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라 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기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그림 17>이 보여주듯이 68%의 응답자들이 많이 있거나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는 기부에 참여하지 못해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면 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사회 개인기부의 전망은 어둡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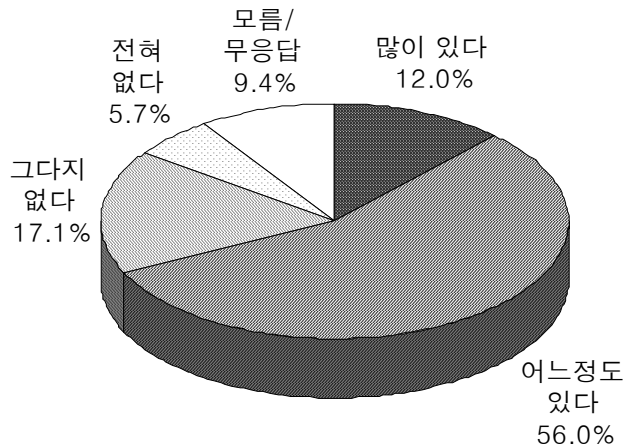


<그림 16> 자선/기부하지 않는 이유

(13) 자선적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희망분야

2000년 기부참여자와 비참여자가 함께 응답한 기부금 사용에 관한 문항은 우선 자신의 기부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분야나 활동 영역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우선 순위별로 세 가지의 활동영역을 제시하였다. <그림 18>은 응답자가

복수로 응답한 세가지 영역을 선택한 빈도와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선택한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세가지 복수 응답이나 첫 번째 응답에 관계없이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아동복지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빈번히 지적된 사실이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지원, 결식아동 지원, 시설아동 지원이 두 척도에서 공통적으로 기



<그림 17> 자선/기부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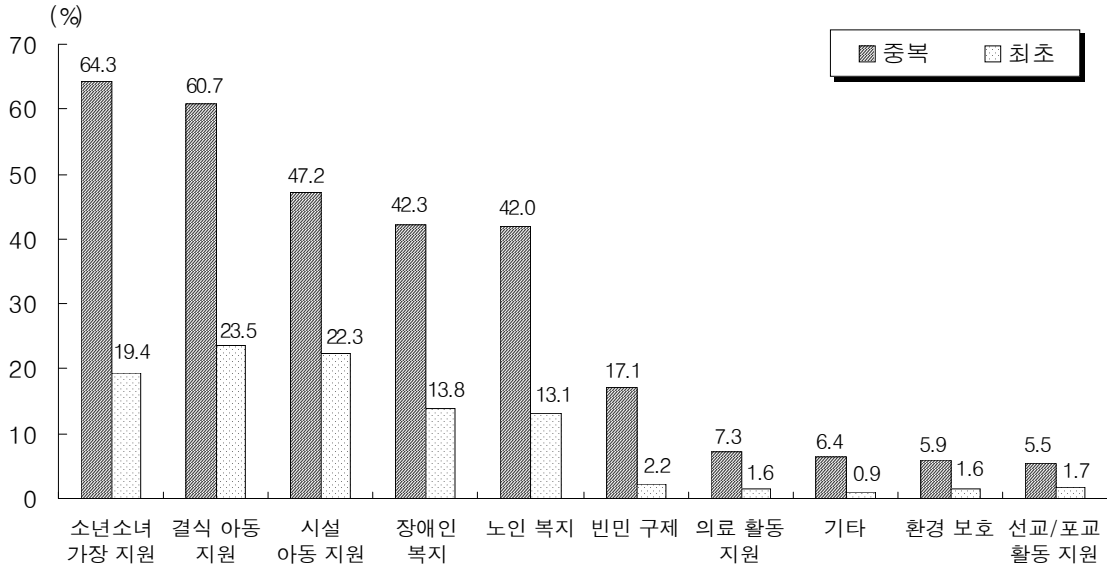
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희망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세가지의 아동복지영역에 이어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도 각각 42.3%와 42%의 복수응답, 그리고 10% 이상의 단수 응답을 보여주고 있어 기부자들은 자신의 기부금이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14) 단체에 대한 신뢰도

기부와 자선에 대한 기존의 조사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 성인들이 다양한 기관이나 비영리조직에 대해 가지는 태도나 신뢰도가 그 기관에 대한 자선적 기부행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Independent Sector 1999). 금번 기부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조직이나 기관에 대해 가지는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공공조직이나 영리조직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정도를 상대적으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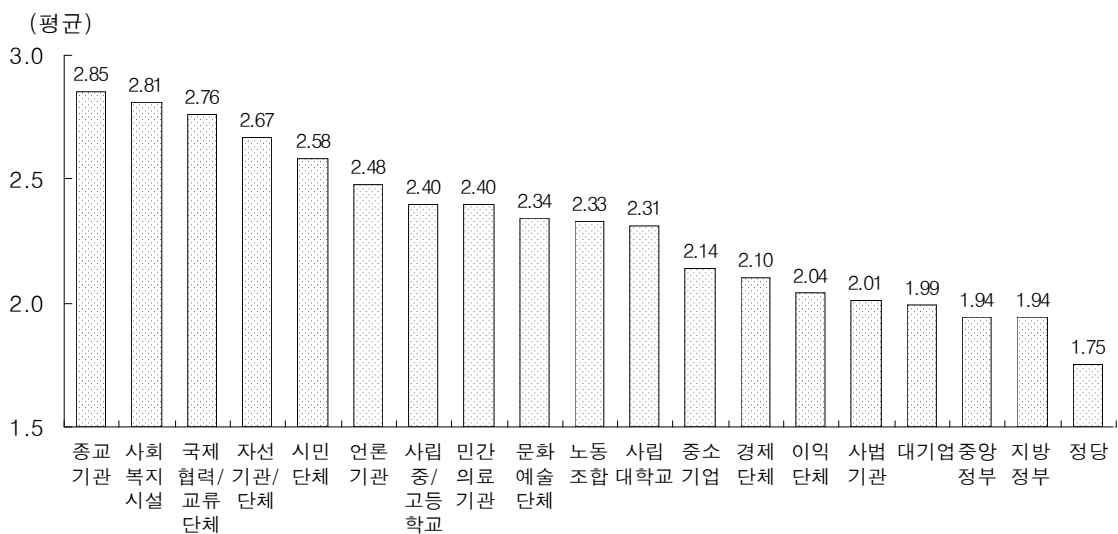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19>는 각 기관의 신뢰지수를 4점 척도로 표시하고 있다. 전체 19개 기관 가운데 신뢰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로 상위 5개 기관은 종교기관(2.85),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2.81), 민간국제협력 및 교류단체(2.76), 자선기관 및 단체(2.67), 그리고 시민단체(2.5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신뢰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 5개 기관은 정당(1.75), 중앙정부(1.94), 대기업(1.94), 지방정부(1.99), 그리고 사법기관(2.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19개 기관 가운데 언론기관이 신뢰점수 2.48로 6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비영리단체가 제1섹타(정부기관)나 제2섹타(영리기관)에 비해



<그림 18> 자선/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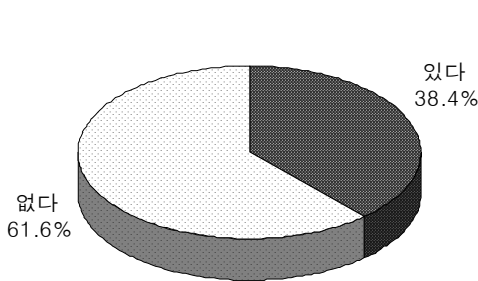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척도상에서 중간에 해당되는 영역에는 사립중고등학교, 민간의료기관, 문화예술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사립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신뢰도가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자선적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관이며, 앞에서 보았듯이 일반인들에 의한 기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의 신뢰도와 기부의 수혜여부 사이의 상관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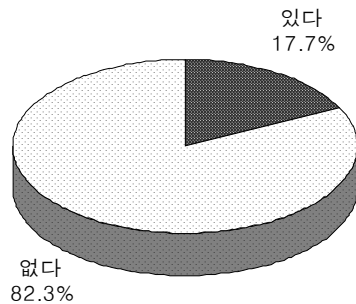
<그림 19> 시설/기관/단체 신뢰도

(15) 자원봉사 참여의 경험

기부금과 더불어 비영리조직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민간자원은 자원봉사이다. 기부가 돈이나 물품을 헌납하는 것인 반면에 자원봉사는 노동이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일생을 통해서 적어도 한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와 2000년 한해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분석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앞서 살펴본 금전적인 기부행위에 비해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20>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동안 단지 38.4%의 응답자만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61.6%의 응답자들이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말해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율이 기부행위 참여율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한해동안의 자원봉사 참여현황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림 21>과 같이 82.3%의 응답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단지 17.7%의 응답자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 여러 인구집단별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적인 평균과 비슷하지만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율 만큼은 전체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게 (41.9%)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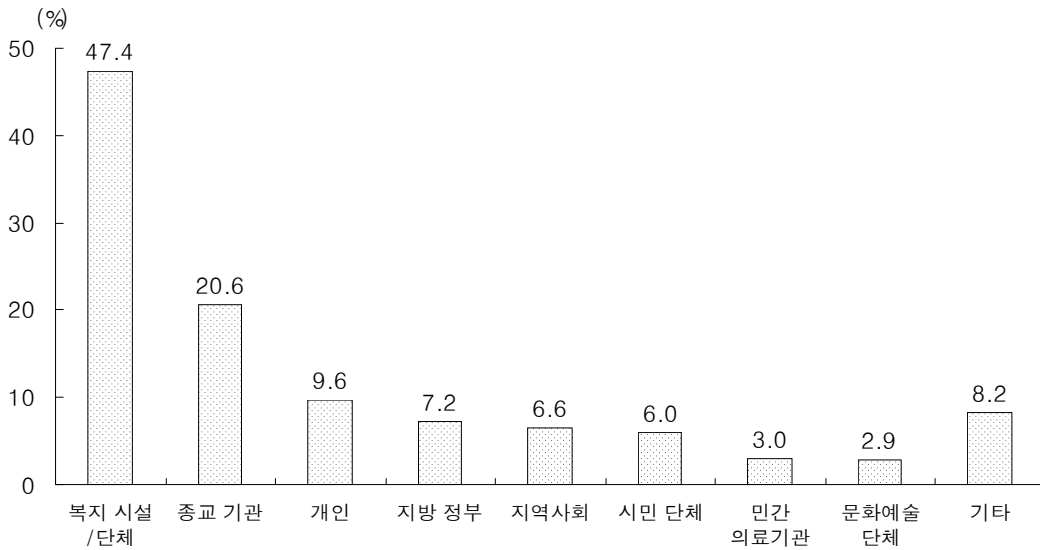
<그림 20> 자원봉사 경험 여부



<그림 21> 2000년 자원봉사 경험 여부

(16) 자원봉사 활동장소

사람들은 어디에서 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가? <그림 22>에서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의 장소는 중복 응답을 포함해서 전체 사례수 179건 가운데 47.4%가 복지시설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20.6%의 응답자들이 종교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학생 응답자의 58%가 복지시설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과 종교기관을 제외하고는 개인에 대한 자원봉사(9.1%), 지방정부(7.2%), 지역사회(6.6%), 그리고 시민사회단체(6.0%) 등에서 골고루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조직에 대한 자원봉사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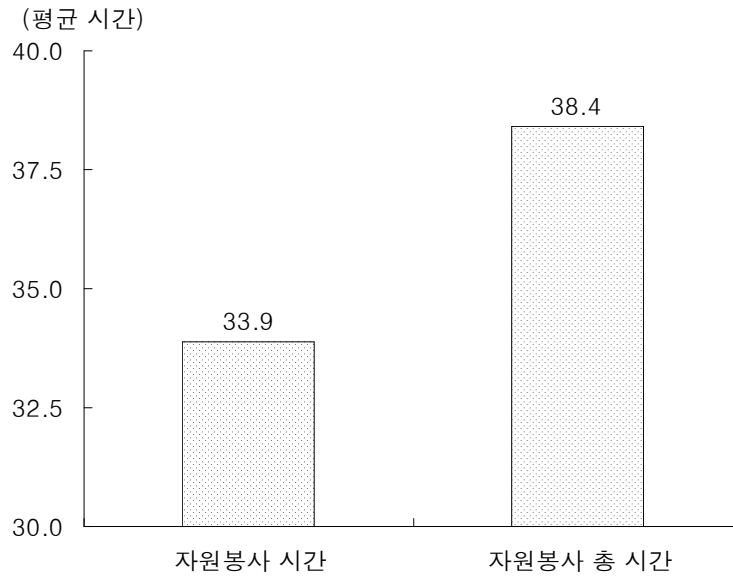


<그림 22> 2000년 자원봉사 활동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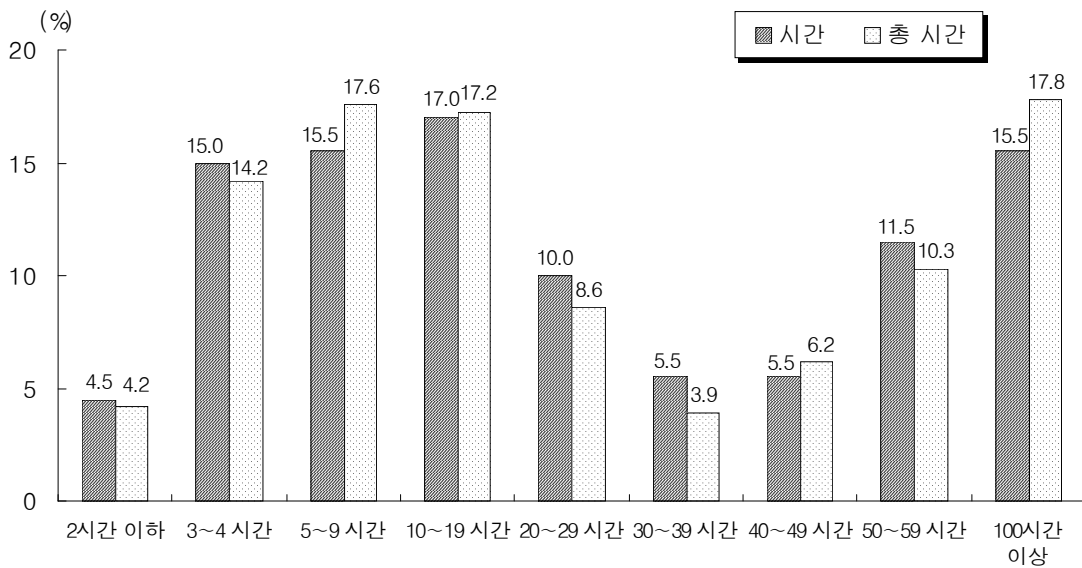
(17) 자원봉사활동시간

2000년 한해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전체 시간은 보고된 200 사례에 의하면 일인당 평균 33.8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한편 여러 종류의 자원봉사장소를 모두 합해서 시간을 계산한다면 지난해 일인당 평균적인 자원봉사 총시간은 <그림 23>에서와 같이 38.40시간이다. 한편 각 개인들이 하나의 자원봉사처당 자원봉사를 한 시간을 구분하면 <그림 24>가 보여주듯이 평균적으로 10시간-19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율인 17%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기관당 2시간 이하의 자원봉사를 한 응답자들은 4.5%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 개인이 일년동안 자원봉사를 수행한 모든 종류의 기관을 다 합해서 시간을 계산해보면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응답자들이 17.8%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성인들은 년 평균 5시간에서 15시간 사이의 자원봉사를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35%가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처별 활동시간은 <그림 25>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자원봉사시간이 가장 많은데 비해, 복지시설단체에서의 평균봉사시간은 적은 편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히 참여하는 자원봉사 대상이 되지만 봉사하는 시간 자체는 많지 않는 기관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자원봉사를 했다고 보고한 사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검증이 필요한 항목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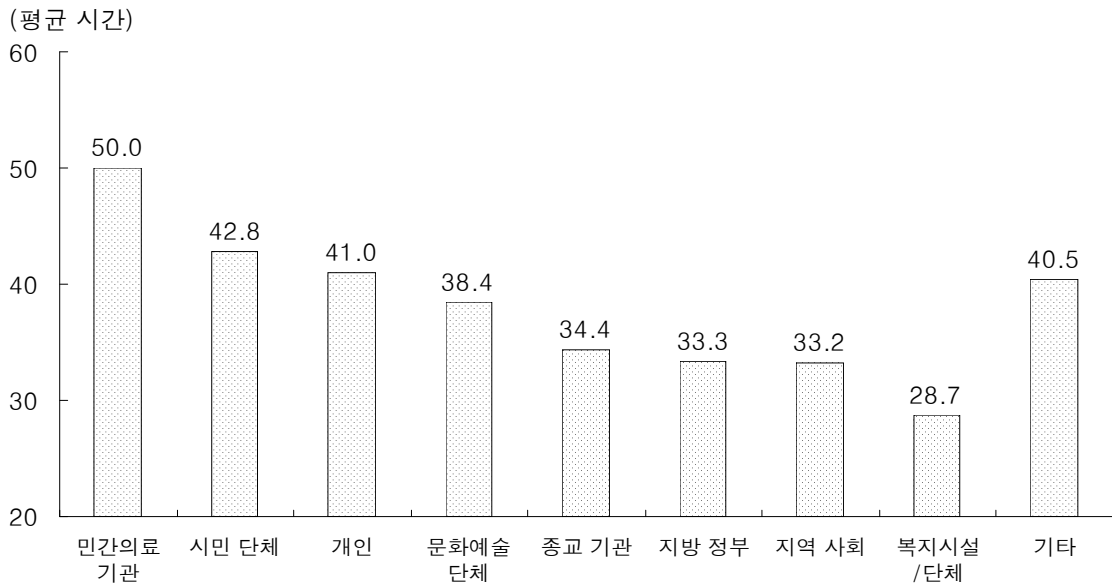


<그림 23> 자원봉사 총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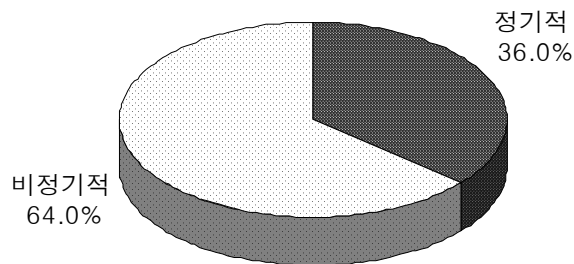


<그림 24> 시간대별 자원봉사 시간

우리 나라 성인 자원봉사자들은 얼마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자원봉사는 비정기적인가? 조사결과는 <그림 26>이 보여주듯이 정기적인 봉사자는 36%, 비정기적인 봉사자는 64%로 나타나 자선적 기부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많지 않다. 하지만 학생 집단의 경우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한 응답자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어 가장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자원봉사처별 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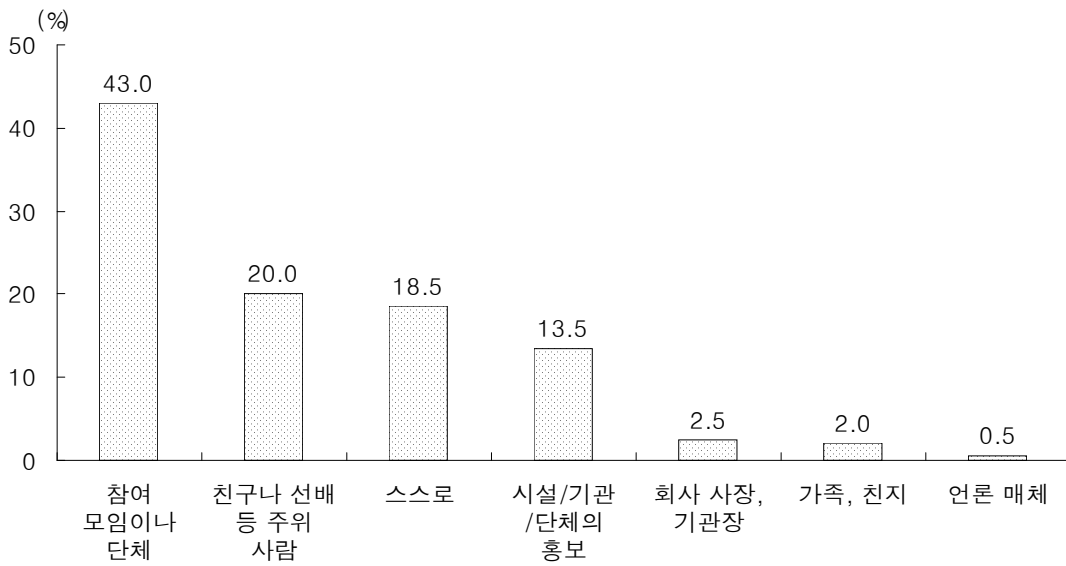
<그림 26> 자원봉사활동 정기성 여부

(18) 자원봉사처의 접촉경로와 자원봉사처를 선택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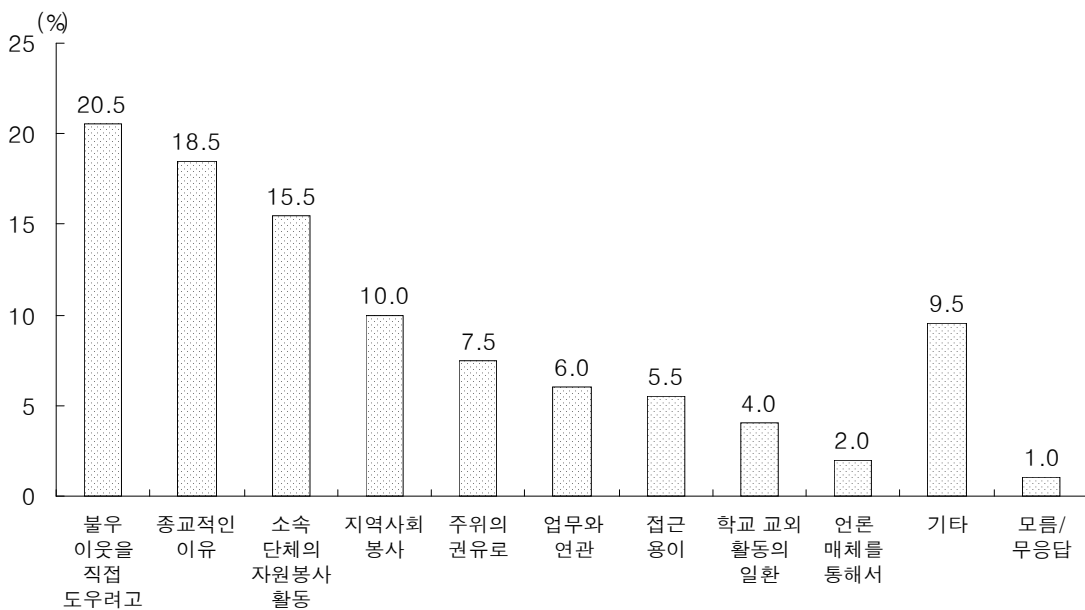
한국의 성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자원봉사처를 알게되어 접촉하게 되는가?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8가지의 접촉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빈번히 지적된 접촉경로는 <그림 27>과 같이 “본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기관을 소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려 43%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접촉경로는 친구나 선배 등 주위사람을 통해서(20%) 알게 된 경우이다. 자신이 스스로 찾았거나(18.5%) 시설이나 기관의 홍보를 접하고 안 경우도 13.5%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를 통해서나,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서,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촉한 경우는 그 빈도가 높지 않다.

많은 자원봉사처 가운데 특별히 그 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즉 많은 자원봉사 기관 가운데 왜 자신이 그곳에서 자원봉사하기로 결정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림 28>에서 보듯이 불우이웃을 직접 도우려고(20.5%),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18.5%), 소속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15.5%),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10%)가 가장 빈번히 지적한 이유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관련성, 업무관련성, 접근용이성, 학교의 과외활동 등이 지적되었으나 그 빈도는 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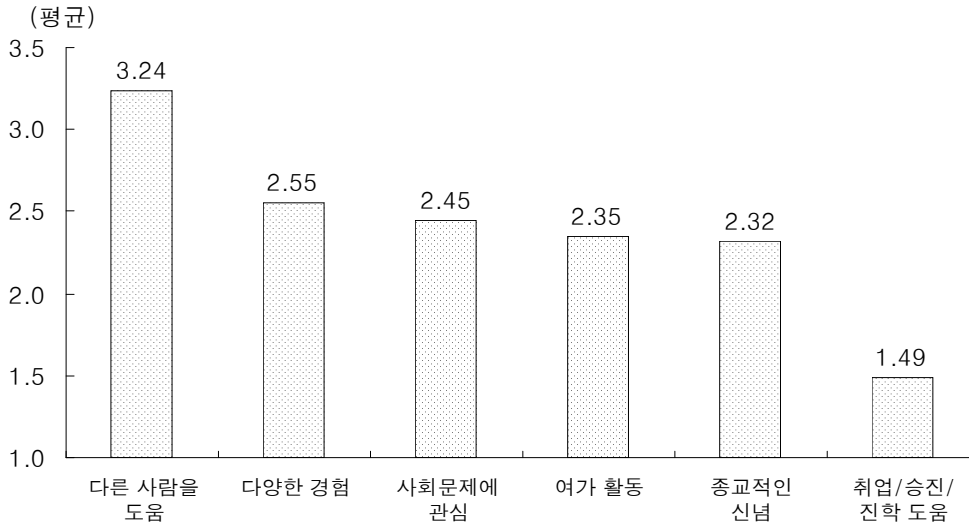
<그림 27> 자원봉사 활동처 접촉 경로



<그림 28> 자원봉사 활동처 선택 이유

(19)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수혜 기관은 물론 자원봉사자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한국 성인의 자원봉사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제시한 여섯 가지의 문항 가운데 매우 강하게 동의하는 응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림 29>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다. 4점 척도에서 무려 3.24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자원봉사란 타인을 돕고 봉사하는 이타적인 동기로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라는 응답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2.55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53%로서 부정적인 응답자의 비율 46%를 약간 초과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에서(2.45),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든지(2.35),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 때문(2.32)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강하지 않는 중간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 승진, 진학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무려 92.5%의 응답자들이 강하게 부정하거나 약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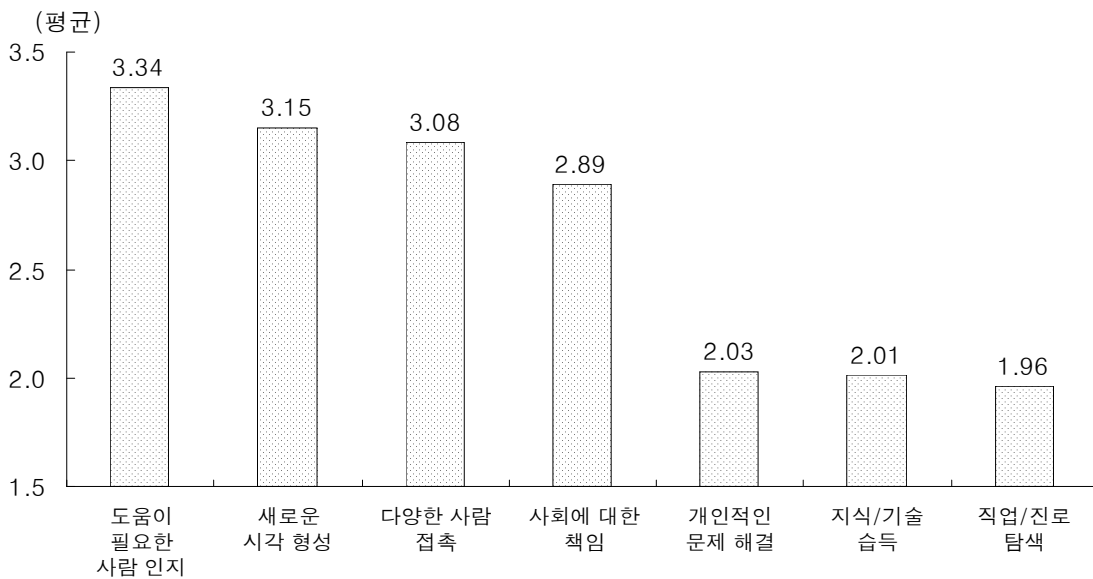


<그림 29> 자원봉사 활동 이유

(20) 자원봉사를 통해 얻은 경험

자원봉사의 결과는 무엇이며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느꼈는가? 모두 7문항이 제시되어 4점 척도로 조사했는데 사람들이 강하게 동의하는 4가지의 항목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었다. 우선 <그림 30>에서 보듯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3.34)라는 응답에 대해 가장 강한 동의를 보여 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든지(3.15), 다양한 사람과 접촉하는 기회가 되었다(3.08), 그리고 사회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2.89)라는 항목 순서로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직업분야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다(1.96), 지식이나 기술 습득의 기회가 되었다(2.01),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2.03)는 응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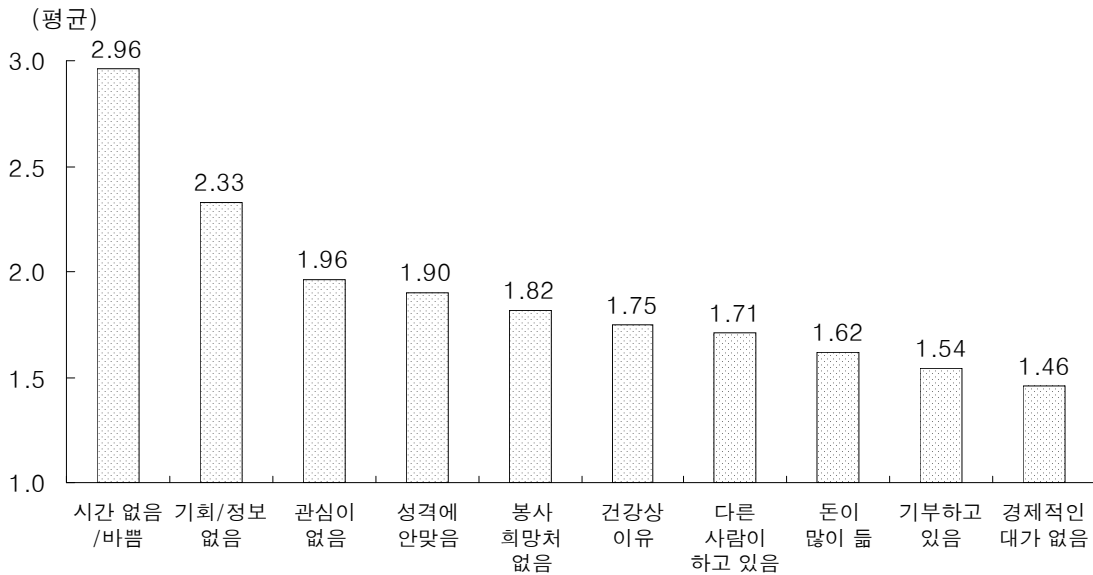


<그림 30>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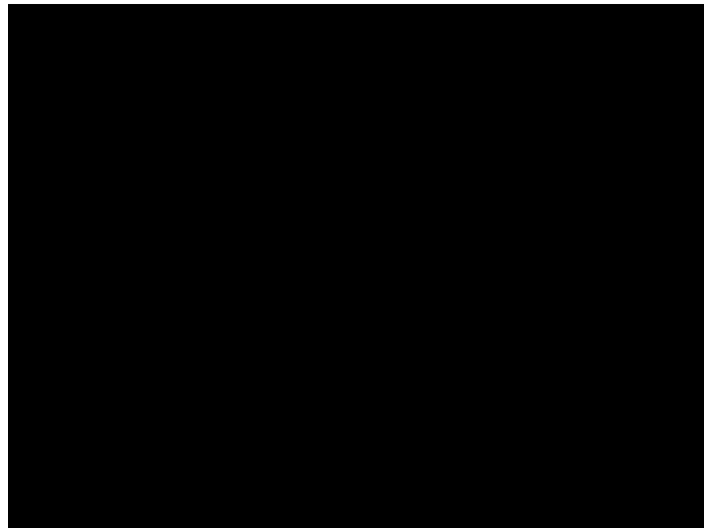
(21)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모두 10가지의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자원봉사를 하지 못하는 623명의 응답자들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항목은 <그림 31>이 보여주듯이 “시간이 없고 바빠서 자원봉사를 하지 못한다(2.96)”는 것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기회나 정보가 없는 것(2.33)도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이유에 해당하지만 이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은 강하지 않다. 하지만 위의 두가지 이유를 제외한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부정하는 태도가 더욱 강하다.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부정하는 항목은 경제적인 대가가 없든지(1.46), 이미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할 필요가 없다(1.54)든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1.62)이라는 응답이다. 하지만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향에 대해 <그림 32>와 같이 자

원봉사를 하지 않았던 623명의 응답자 가운데 62%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11.2%는 많이 있다고 응답하여 무려 73%가 넘는 응답자들이 미래에는 참여의 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한국성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림 32> 자원봉사 활동 참여 의향

5. 맺음말

금번 연구조사는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의 실태와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적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선진 여러나라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의 경험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기존의 조사 연구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적절하면서도 다른 나라와의 비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사설계와 조사도구가 완성되었다. 오늘의 글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로 서술적 통계와 빈도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행동에 관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특징을 분석했지만, 이어지는 후속연구에서는 인과적 모델에 의한 설명적 분석과 인구집단별 심층적인 분석이 계속될 것이다. 금번 조사의 서술적 통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한해동안 한국인 가운데 자선적 기부를 한 사람의 비율이 자원봉사를 한 사람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 한국 성인의 4명 가운데 3명은 작년에 적어도 한번 이상의 자선적 기부를 한 경험이 있지만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람은 5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

둘째, 한국인들이 즐겨 기부하는 곳은 종교기관, 언론기관, 그리고 개인이지만 복지단체나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도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기부는 활발하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도 미약하다. 한국인의 기부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가 활발하며, 종교적인 목적의 기부를 제외한다면 언론기관에 대한 ARS방식의 기부가 가장 빈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이 가장 자주 자원봉사를 하는 곳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이며 종교기관에 대한 자원봉사활동도 빈번하다.

셋째, 한국인은 작년 한해 동안 1인당 평균적으로 28만원의 금전을 기부했으며 38.4시간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헌신하였다. 하지만 한국인이 낸 기부금에서 종교기관에 대한 현금이나 시주를 제외하고 민간 비영리조직에 대한 순수한 자선적 기부금만을 고려한다면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98,660원으로 줄어든다.

넷째,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부의 방법은 시설이나 기관에 본인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에 기부할

때는 직접 전달의 방법을 선호하지만 언론기관에 기부할 경우에는 ARS전화를 주로 이용한다. 그 외에도 가정방문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모금단체의 모금함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가두모금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활용하지만 그 빈도는 크게 높지 않다. 자동이체의 방법, 지로용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기부의 방법은 아직 한국인이 선호하는 기부의 방법이 아니다.

다섯째, 한국인의 기부행위와 자원봉사활동은 비정기적인 경향이 강하다. 종교기관을 포함해도 정기적인 기부자는 30%가 되지 않으며, 종교기관을 제외한다면 정기적인 기부자는 16%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은 기부활동에 비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36%로서 약간 높다. 정기적인 후원자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많은 비영리조직의 입장에서는 기부자든 자원봉사자든 비정기적인 기여자를 어떻게 정기적인 기여자로 만들 것인가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한국인이 금전(기부)이나 노동(자원봉사)을 기부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불우이웃을 도우려는 마음과 동정심에서이다. 자선적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이유는 불우이웃에 대한 동정심과 측은지심,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에서이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지적되는 세금공제나 사회개선에 대한 관심은 기부나 자원봉사의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이유로 보인다.

일곱째, 기부자들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이자 소외계층을 위해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4대 수혜영역은 불우아동지원, 장애인, 노인, 그리고 빈곤퇴치이다. 이 가운데서도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그리고 결식아동을 금전적으로 도우려는 의지가 가장 강하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고, 시간을 기부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부처를 불신하는 것과 자원봉사에 대한 기회나 정보가 부족한 것도 개인이 돈과 노동력을 공익을 위해 헌납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이다.

본 조사연구가 이번에 파악한 기부와 자원봉사에 관한 실태는 한국 비영리영역이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원(resources)의 주요 통계를 보여준다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금번 조사보고는 기부금에 재정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모금전략 및 민간자원의 동원전략(강철희 1998, 황창순 1996; 1999), 그리고 민간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를 촉진시키기 위

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표본의 선정 및 질문도구의 지속적인 개발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서베이 조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자료가 해마다 축적된다면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대별 변화추이와 그 인과적 연관성이 더욱 자세히 밝혀질 것이다.

참고문헌

AAFRC TRUST FOR PHILANTHROPY, 1999. Giving USA: The Annual Report on Philanthropy for the Year 1998.

AAFRC TRUST FOR PHILANTHROPY, 2000. Giving USA Update: Recent Findings on Charitable Giving. A Newsletter, Issue 2, 2000.

Asia Pacific Philanthropy Consortium, 2000. Resource Mobilization Project.

Independent Sector, 1999.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1999 editi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in Britain. 7th Edition. 1994. Charities Aids Foundation.

Jas, Pauline, 2000. "Individual Giving: What? Who? How? – But especially: Why? a paper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 sector Research, Dublin, Ireland, July 5–8, 2000.

Statistics Canada, 1998. Survey of Volunteering, Giving, and Participation. Questionnaire.

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Phase II & IIB Project Guidance Manual. 1998.

강철희, 1998.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1-30.

김준기, 2000.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2000. 12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 자선 및 기부활동에 관한 조사.

정기원, 황창순, 강철희, 류승표, 2000. 민간복지 총량파악 체계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정무성, 2000. “비영리조직의 재정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2000년 7월 19일 바람직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시민운
동지원기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

황창순(1996), “공익법인 규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동서연구 제8권: 5-24.

황창순(1999), “기업과 사회복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의 관점.” 순천향사회과학연구.
4권2호: 211-224.